

Style

조선일보

AUGUST 2013 vol.96

TIFFANY & Co.

NEW YORK SINCE 1837



Paul Smith

SEOUL FLAGSHIP STORE - SINSA DONG 650-7

WWW.PAULSMITH.CO.UK



48 12



여성들의 로망, 티파니는 전 세계 상위 0.02%의 최상급 다이아몬드 중 엄격하게 선별한 원석만 사용해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권위자로 자리잡고 있다.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극대화한 커팅으로 세 명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티파니의 웨딩 링은 단지 중의 반지라고 불리며 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에게 가장 받고 싶은 웨딩 링으로 손꼽힌다. 문의 02-547-9488



30



08

Style 조선일보

Issue.96 August 2013

- 12 **젊은 창조 계급, 한국 가구의 지평을 넓히다** 대중적이면서도 미학적 오리와 양호한 질을 갖춘 한국 디자이너들의 젊은 가구 브랜드가 눈에 띈다. 가구 디자인의 지평을 넓히는 그들의 활약이 반갑다.
- 14 **ROMANTIC PERFECTION** 럭셔리한 커피스 링크부터 멋스러운 부토니에까지, 웨딩 룩을 더욱 근사하게 완성해줄 남성 액세서리.
- 16 **LOVE AND YOU** 천연히 빛나는 다이아몬드의 황홀함은 모든 연인을 촉박한다.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웨딩 주얼리 컬렉션.
- 24 **THE PERFECT RING**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더 빛나는 티파니 다이아몬드 웨딩 컬렉션.
- 26 **HAUTE CLASSIC** 할프 로렌을 대표하는 리키 백이 사랑받는 이유는 클래식한 디자인과 최상급 소재, 정교한 디테일로 세밀이 흘러도 변함없는 멋을 보여주는 때문이다.
- 28 **THE GREAT MOVEMENT** 지난 7월 스위스 시계 브랜드 오메가가 개최한 <코-엑시얼 전시회>는 기계식 시계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전시였다.
- 30 **ONE FINE DAY** 내 친구의 결혼식. 저마다 개성이 담긴 룩으로 한껏 멋을 낸 그들이, 잊지 못할 아름다운 순간을 위해 모였다.
- 38 **SECRET SCENTS** 로맨틱한 카를을 위한 향수 컬렉션.
- 39 **RESET YOUR TIME** 현대 슈퍼 우먼의 피부 시간을 리셋해줄 샤넬의 피부 시간케어 3단계 프로그램.
- 40 **THE ESSENCE OF PROVENCE** 대지의 힘과 순수한 원료에 대한 고집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지켜온 룩스담 이야기.
- 42 **PRECIOUS PLEASURE** 빠르고 집중적인 효능, 독보적인 성분과 고급스러운 텍스처의 프레스타지 코즈메틱.
- 43 **POWERFUL RED ESSENCE** SK-11는 25년간의 연구 끝에 혁신적인 테크놀로지의 스텝파워 에센스를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 44 **D-DAY BEAUTY** 비수술적 요법으로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날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막 마사지, 자항 파괴술, V라인 리프팅까지,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이 직접 체험한 생생한 리뷰.
- 45 **DOUBLE EFFECT** 비관스가 남긴 피부 노화의 흔적을 해결해줄 '시 세이드 골드 세럼'이 8월, 그 효과만큼 2배 커진 대용량 사이즈로 선보인다.
- 46 **THE KING OF DIAMONDS** 다이아몬드의 진정한 '인자'를 지켜 주는 영국의 하이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Graff)를 한국에서도 접할 수 있게 됐다. **PROGRESSIVE PASSION** 절제되고 정교한 이미지로 가득한 홍콩의 생 로랑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했다. **상하이의 초여름을 장식한 영화의 수호자** 파인 워치메이킹 브랜드 예거 르쿨트르는 그 남다른 존재감을 울여름 상하이국제영화제(SIFF)에서 드러냈다.
- 48 **VINTAGE CHIC** 제네바와 로잔 사이 레안 호수 인근에 자리 잡은, 포도밭을 끼고 있는 낡은 집이 멋지게 부활했다.
- 50 **LUXE KITCHEN**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으로 예비 신부를 사로잡을 럭셔리 카운터와 테이블 세팅 노하우.



FENDI.COM

FENDI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에디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권유진 yjkwon@chosun.com
 이메일 yejin_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통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제판 | ING PROCESS
 인쇄 | 타리타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퍼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첫째 주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인 첫째 주 화요일에 배달됩니다.
 ※ 2·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적지로 두 번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동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컬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까이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Jewel
SIMPLY
BRIILLANT**

화려하진 않지만
언제나 가까이
둘 수 있는 심플한
다이아몬드 컬렉션.

(오른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6개의 프롱으로 다이아몬드를 감싸고 있는 노블 네크리스 0.57캐럿 기준 5백만원대 루시제, 플라타늄을 스캐어 모양으로 세팅한 C 2 캐피에 이어링, 0.53캐럿으로 2천2백만원대 카르피에, 작은 다이아몬드를 플래타늄으로 감싸 깔끔한 프렐린자 골드 링 2백10만원대 타사기, 7개의 작은 다이아몬드를 교묘한 간격으로 세팅한 페디 웨딩 밴드 2백70만원대 불가리,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높이 세팅한 파블라 링 7백만원대 디아나, 1캐럿짜리 리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그라피 컬렉션 네크리스 3천1백만원대 불가리, 심플한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웨브 형태로 작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인피타 링 5백40만원대 타사기, 밴드의 절반을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하프 밴드 컬렉션 링 4백만원대 에이치스텐, 작지만 우아한 미누 네크리스 9백만원대 디아나, 에디터 베이진

**Fashion
DREAM DRESS**

케이트 미들턴이 입을 제니 팩햄, 고소영의 앙살라, 한혜진의 오스카 드 라 렌타 드레스... 왕실 귀족을 비롯해 할리우드 셀러브리티와 국내 톱 배우의 결혼식만큼이나 웨딩드레스가 화제를 모으며 그에 대한 관심이 해외 명품 드레스 숲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 드레스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고가의 가격대임에도 웨딩 하우스의 전통과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한 고급스러운 소재와 보드라운을 아름답게 살리는 우아한 실루엣, 완성도 높은 디테일로 남고되는 차별화된 드레스를 꿈꾸는 여성들의 로망을 실현시킨다. 먼저 고소영, 손태영 등 국내 여배우 뿐만 아니라 할리우드 스타의 웨딩드레스로 사랑받는 브랜드 앙살라(Amsale)는 모던한 패브릭과 구조적인 디테일로 세련된 맨해튼 분위기를 표방하는 앙살라, 섬세한 실크와 프랜치 레이스, 오간자 등 섬세한 소재를 다룬 크리스토프, 극도로 화려한 디자인의 케네스 폴 등 각자 뚜렷한 개성을 지닌 3개의 브랜드를 갖추었으며, 국내에서는 역삼동 플래그십 스토어와 신라 호텔 아카데미에서 만날 수 있다. 유럽 신부에게 꿈의 드레스로 불리는 '프로노비아스(Pronovias)'는 마돈나, 안젤라나 줄리아 입어 유명세를 떨치며 기성복과 아웃 쿠티어를 결합한 혁신적인 웨딩 컬렉션으로 사랑받는다.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프로노비아스를 비롯해 아틀리에, 엘리 by 엘리 사브까지 프로노비아스 그룹의 전 컬렉션을 독점적으로 선보인다. 세계적인 웨딩드레스 브랜드를 한곳에 집한 인기 웨딩드레스 편집 매장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배우 강혜정과 박시연의 웨딩 스타일링으로 질 일러진 비온드 더 드레스에서는 미르케시를 비롯해 라리니, 엘모자베스 필모어, 템 팔리 브리델 등 젊은 신부를 위한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스타일의 웨딩드레스 브랜드를 만날 수 있으며, '소우 브리델'에서는 오스카 드 라 렌타와 캐롤리나 헤라라, 림 이크라의 이브닝드레스를 비롯해 제니퍼 베이, 시라 가브리엘 등의 헤드피스와 웨딩 슈즈까지 선보이며 완성도 높은 토털 브리델 룩을 제시하고 있다. 에디터 이예진



캐롤리나 헤라라 by 소우 브리델



앙살라 역삼동 플래그십 스토어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Book
인테리어의 시작은 '벽이다'

시간과 정성,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집 꾸미기가 불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여기, 실패하지 않을 간단한 룩을 제시하는 인테리어 책이 있다. 월간 (매종) 편집장이었던 자자는 간단한 룩만 잘 숙지한다면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완성도가 있는 인테리어도 모두에게 멋있다 칭송받을 수 있는 집 꾸미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인테리어의 시작은 바로 '벽'. 인테리어에 대한 로망만 가지고 실천하지 못했다면 부담 없이 한쪽 벽부터 디자인을 시도해보라고 권한다. 지금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첫 번째, 우리 집 벽을 어떻게 할까?를 먼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 밖에 바닥, 문, 그리고 천문 역시 벽의 일부분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위기를 달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실용적이고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사진과 쉽게 다룰 수 있는 실속 있는 인테리어 팀이 잘 매치되어 보는 순간 인테리어에 대한 로망과 실천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센스 있는 실용서이다. (주인파블릭 로гин 출판. 김미진 지음. 276쪽, 1만9천8백원.)



3세 때 프랑스에서 태어난 폴 가갱은 1888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스코틀랜드 미술학교에서 미술을 배웠다.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1897~1898)를 통해 가갱은 3대 걸작으로 꼽힌다. 파리의 주시 중개인으로 활동하다 서른다섯의 나이에 전업 화가의 길을 택한 가갱은 인상주의와 차별된 독자성을 지닌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지녔지만, 산업혁명을 몸시 혐오해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남태평양의 섬 타히티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예술의 꽃을 찬란하게 피였음에도 생전에는 자신의 기대처럼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불행한 말년을 보냈다. 그렇지만 사후에는 반 고흐와 함께 20세기 현대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장으로 추앙받고 있다. 문의 1588-2618, www.gauguin.kr 에디터 고영연

Exhibition
(낙원을 그린 화가 고크 그리고 그 이후)展

근대 회화의 시작점을 짚는 것으로 평가되는 폴 고크(Paul Gauguin, 1848~1903)의 '3대 걸작'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작품을 비롯해 작가의 뛰어난 회화 세계를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고 있다. 전 세계 30여 개 미술관에 소장된 고크의 대표작 60여 점을 접할 수 있는 (낙원을 그린 화가 고크 그리고 그 이후)전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오는 9월 29일까지 열린다(매주 월요일은 휴관). 남긴 작품 수가 그리 많지 않은 고크의 이번 전시 작품은 총 보일 평가액이 1조5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가치의 위세를 뽐냈다. 인상파로 입문했지만 대담한 원색과 원근법을 무시한 화면 분할법으로 현실과 상상을 접목한 종합주의 회화 기법을 선보인 고크는 인상주의 시대에 종말을 고한 위대한 화가로 기록된다. 인상주의와 결별을 고하는 상징주의 대표작이 바로 고크의 예술 여정에서 전기로 여겨지는 브라타뉴 시기의 걸작 '실고 후의 환상(천사와 싸움하는 아담)'(1888), '황색 그리스도'(1889)와 같은 작품들이다. 이와 함께 미국적 정서로 증언했던 후기인 폴리네시아 시기의 대표작으로 꼽이 4m에 이르는 벽화 양식의 작품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1897~1898)를 함께 고크의 3대 걸작으로 꼽는다. 파리의 주시 중개인으로 활동하다 서른다섯의 나이에 전업 화가의 길을 택한 고크는 인상주의와 차별된 독자성을 지닌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지녔지만, 산업혁명을 몸시 혐오해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남태평양의 섬 타히티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예술의 꽃을 찬란하게 피였음에도 생전에는 자신의 기대처럼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불행한 말년을 보냈다. 그렇지만 사후에는 반 고흐와 함께 20세기 현대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장으로 추앙받고 있다. 문의 1588-2618, www.gauguin.kr 에디터 고영연



**Beauty
COLD PLAY**

여름철 강한 자외선과 높은 습도는 불쾌지수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에 불을 댕기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심할 것. 지금은 후끈 달아오른 피부의 열을 다스려줄 쿨링 화장 품으로 늘어난 모공과 뒹어진 탄력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때다.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휴대하고 다니면서 수시로 뿌려가 좋은 '샤벨 이드라 뷰티 에센스 미스트'는 칙칙하고 힘을 잃은 피부에 풍부한 수분감과 영양을 주는 활력 증진제 같은 역할을 한다 (50ml, 11만원). 말랑한 젤 텍스처와 피부에 닿자마자 시원한 쿨링감을 느낄 수 있는 '블리란스 하이드라 랙치 크림 켈은' 낮 동안 자외선에 지친 피부에 수분감을 불어넣어 줄 수분 크림. 석류의 알피인 율로우 허브 추출물이 모공을 조여주고 왕성한 피지 분비를 잠재워준다(50ml, 6만원). '엔조앙 아이스 플드 아이크림'은 이 때 불룩한 주머니와 디스크를 효과적으로 케어하는 쿨링 제품. 냉각기에 넣어 차갑게 사용하면 눈가의 부기를 개선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15ml, 6만8천원). 비강스 후 발절게 달아오른 피부에는 수분 맥인 'SK-II 스킨 리부스터'로 피부의 열을 식히는 데 집중할 것. 시원한 젤 텍스처가 가늘어진 피부를 부드럽게 다독여 스킨케어 유익 성분의 흡수를 돕는다(75g, 10만원대). 결량의 수퍼 이쿠아 라이트 세럼은 결량의 대표작인 인피에 이징 수분 세럼과 함께, 목부터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을 채워 주름이 생기기까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준다(30ml, 19만6천원). '블리란스 수퍼 민티 슝 앤 슝'은 얼음처럼 알싸한 민트 성분 알갱이가 들어 있어 마치 멘솔 마사지를 받은 듯한 시원한 청량감을 선사한다(236ml, 4만6천원). 에디터 이예진

+822 3443 2323 prada.com



1 브랜드의 시그니처 패턴이 돋보이는 액세서리 케이스 4백90만원 **고아드**. 2 세련된 블랙 프레임 안경 52만원 **통 포드 by 10 코르소 꼬모**. 3 토너 세이프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와 가죽 밴드가 클래식한 헤리티지 컬렉션 오토매틱 워치 5480BB 5천4백만원대 **브레게**. 4 브랜드 고유의 네 가지 모티브와 화이트 & 블랙 골드의 조화가 모던한 귀티로 블랙 에디션 링 1천3백만원대 **부쉐론**. 5 유처리스 부토니에 가격 미정 **다스타 웨딩&파티**. 6 실크 소재의 도트 보타이 23만원 **브리오니**. 7 블랙 텍스처 3백10만원 **랄프 로렌 블랙 라벨**. 화이트 셔츠 86만8천원, 블랙 보타이 17만8천원, 카라밴드 39만8천원, 헝가리프 가격 미정 모두 **랄프 로렌 퍼플 라벨**. 8 뉴욕의 헤리 워스턴 살롱의 아치 디자인을 모티브로 한, 프리미어 컵스 링크 7백만원대, **헤리 워스턴**. 9 고급스러운 광택과 견고한 디자인이 멋스러운 소가죽 브리프케이스, 36.5x27cm, 1백13만원 **휴고 보스**. 10 티베코 황과 꿀에 절인 과일과 달콤한 향이 어우러진 볼류트 오드 퍼퓸, 75ml, 19만8천원 **딕티크**. 11 전통 차이나스 레커와 실버, 골드, 팔라듐과 같은 최고급 소재가 어우러진 라인 2 라이터 1백85만원 **S.T. 듀롱**. 12 중후한 멋이 드러나는 2012 문화 예술 후원자 상 요제프 2세 에디션 만년필 3백80만원 **몽블랑**. 13 날렵하고 매끈한 라인의 레이스업 슈즈 1백84만원 **토즈**.

브리오니 02-540-4723 **랄프 로렌** 02-545-8200
10 코르소 꼬모 02-3018-1010 **부쉐론** 02-543-6523
다스타 웨딩 & 파티 02-396-9743 **토즈** 02-3438-6008
몽블랑 02-3485-6627 **딕티크** 02-514-5167
S.T. 듀롱 02-6905-3764 **휴고 보스** 02-6905-3751
고아드 02-3448-4778 **브레게** 02-2118-6480
헤리 워스턴 02-540-1356

for bridegroom
Selection

세련되고 클래식한 웨딩 룩을 연출하고 싶다면 우선 라인이 잘빠진 텍시도부터 갖추 입을 것. 여기에 컵스 링크, 부토니에같이 럭셔리한 액세서리를 매치하면 완벽하다.
photographed by hong sung eun

권영민/이대리/유영환/정지현/박지현

BOUCHERON

PARIS



QUATRE

FIRST JEWELER OF THE PLACE VENDÔME*

SEOUL : GALLERIA LUXURY HALL EAST | LOTTE AVENUE | SHINSEGAE GANGNAM | HYUNDAI COEX | 02 543 6523

BUSAN : LOTTE MAIN DEPARTMENT STORE | 051 810 3160

www.boucheron.com

*In 1893, Frédéric Boucheron is the first of the great contemporary jewelers to open a Boutique on the Place Vendôme



1 리본 장식이 사랑스러운 핑크 클러치. 24X11cm, 가격 미정 **테드 베이커**. 2 베젤 위에 18캐럿 다이아몬드가 화려하게 세팅된 레드 골드 케이스의 컨스텔레이션 여성 워치 1천7백만원대 **오메가**. 3 18K 사쿠라 골드 바 위에 이코아 진주를 일렬로 세팅한 벨런스 네크리스 5백50만원대 **타사키**. 4 유색석으로 포인트를 준 팔라그리 컬렉션 네크리스 1천만원대 **타파니**. 5 플라워 패치와 레이스 장식이 아름다운 튜브 톱 드레스 1천7백만원 **오스카드라켄 타 by 소우 브라이덜**. 6 핑크빛 라넌클라스와 진잔한 시메네 플라워가 수줍은 신부를 연상케 하는 부케 가격 미정 **더스타 웨딩 & 파티**. 7 랜턴의 자유로운 절은 귀족에게서 영감을 받은 매력적인 향수. 50ml, 24만 8천원 **펜할리곤스**. 8 플라워 모티브의 헤어 핀 가격 미정 **소우 브라이덜**. 9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헤어스타일을 완성해줄 나비 모티브의 헤어밴드 1백15만원 **디올**. 10 화려함이 돋보이는 드롭형 이어링 55만원 **에디 보르고 by 10 포로스 코모**. 11 부드러운 핑크 컬러가 매력적인 스트랩 슈즈 1백만원대 **루이 비통**. 12 왕실 문장이 새겨진 골드 컬러가 럭셔리한 각테일 드 피브란 샌티드 캔들 14만5천원 **크리드**. 13 선물 박스를 연상케 하는 액자 80만원대 **타파니**.

테드 베이커 02-310-5112 오메가 02-511-5797 소우 브라이덜 02-541-7077 타사키 02-3461-5558 타파니 02-547-9414 펜할리곤스 02-555-5152 디올 02-518-0277 10 포로스 코모 02-3018-1010 루이 비통 02-3444-1727 크리드 02-517-5218 더스타 웨딩 & 파티 02-396-9743

for bride
Selection

이날만큼은 최대한 여성스럽고 러블리한 룩을 선택할 것. 수줍게 물든 신부의 핑크빛 뺨같이 사랑스러움이 가득한 웨딩 컬렉션. *photographed by kim do hyun*



TASAKI
BRIDAL

젊은 창조 계급, 한국 가구의



아이네 클라이네 '듀오'
이상록(왼쪽), 신하루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럽에서는 인지도가 꽤 높은 폴 켈리(Paul Kelly)라는 영국의 가구 디자이너가 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월페이퍼 디자인 상을 받았고, 패션 디자이너 폴 스미스를 비롯해 유명 인사들을 고객으로 둔 이

인들은 디자이너가 아니라 메이커(maker)로 불리기를 원한다. 숙련된 목수의 자세와 수공예 장인의 실력을 발휘해 일일이 주문 제작 가구를 만들기에 이러한 호칭을 고집하겠지만, 확실히 그는 너도나도 디자이너임을 강조하는 요즘 세상에 튀는 면모를 지닌 것 같다. 일각에서는 그의 재능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효율적인 파트너 제조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량을 늘리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그는 메이커의 삶을 고수하고 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공장에서 찍어내는 획일화된 가구가 판을 치는 가운데 폴 켈리처럼 스스로의 손을 많이 사용하는 메이커들은 베테랑 목수의 솜씨와 디자이너의 감각이 어우러진 특유의 희소성 덕분에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라.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국내 가구업계에서 안정된 직장을 찾는 대신 자신의 비전을 펼칠 수 있는 브랜드를 직접 만들어 키워나가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는 현상은 '메이킹(making)'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자라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저마다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핸드메이드 가구를 고집하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이끄는 브랜드는 뭔가 허전한 구석이 많았던 국내 가구 디자인의 지평을 점차 넓히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가구 시장은 해외의 명품 브랜드들과 독창성이 떨어지는 획일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중소 업체들 사이에서 참신한 디자인과 안정적인 품질, 마케팅 능력을 갖춘 '틈새 브랜드'를 거의 보유하고 못했다. 하지만 수년 새 기준과는 좀 다른 디자인 언어를 구사하며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는 '수제 가구'를 지향하는 젊은 디자이너 브랜드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작가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지나치게 부담스럽거나 반대증적이지도 않다. 얼마 전 서울 금호미술관에서 개최됐던 <New Wave: Furniture and the Emerging Designers> 전시나 코엑스에서 열렸던 <핸드메이드코리아페어>전에 대한 호응은 이러한 흐름을 잘 드러내는 증거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내년이면 만원제품을 파는 'DIY 가구의 제왕' IKEA가 국내 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라 중소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신진 브랜드들은 가구에 대한 대중의 관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오히려 환영하는 눈치다(물론 가격대도 다르다). 새 흐름을 이끄는 젊은 진영에는 1~2인이 운영하는 '공방'이 가까운 브랜드도 있고, '리빙 브랜드'를 지향하는 기업형 브랜드도 있으며 가구 카페를 함께 꾸러가는 프랜차이즈형 업체, 그리고 '인디 영화를 연상케 하는 독특한 느낌의 목공소를 운영하는 개성파도 있다. 국내 가구업계의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로 떠오르고 있는 '4색' 브랜드를 소개한다.

eine kleine 예쁜 가구 제작자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지지하는 도우미가 되고 싶다

아이네 클라이네(ek-furniture.com)의 가구는 금호미술관의 전시회에도 선보였던 '수놓고 옷 짓는 작업'을 보면 그 세심한 배려를 금방 느낄 수 있다. 스타일리스트 서영희 씨를 위한 이 작업대는 없어서 작업하는 수 작업과 서서 하는 '옷 작업'이 섞여 있는 점을 고려해 일반 테이블보다 높은 750mm로 높이를 정하고 깊이도 920mm로 잡았다. 수 작업을 할 때 소매를 수납하기 위해 얇은 서랍을 달고, 반대편에는 옷 작업을 할 때 옷을 놓을 수 있도록 깊고 폭이 넓은 서랍을 달았다. 주문 제작이기에 가능한 이 같은 '맞춤형 디자인'은 실제로 가구를 쓰는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작업한 흔적이 역력히 보인다. 이렇게 고객의 사용 환경을 철저히 고민해 탄생시킨 가구는 아이네 클라이네가 바라듯 '삶의 도우미', '삶의 동반자'처럼 쓰일 확률이 높기에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라는 지향점에도 맞닿을 수 있다. "건축하고 비슷해요. 저희는 일단 고객과 만나 요청 사항을 충분히 듣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물론 표본으로 나와 있는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긴 하지만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개 조금이라도 수정을 가한 가구를 원하시지요." 우리에게도 모차르트의 세레나데로 더 익숙하게 알려졌지만 일본의 소설가 아사카 고타로의 단편소설 제목에서 따왔다는 '아이네 클라이네' 퍼니처. 한

흥대 앞 거리의 웬만한 카페에는 스칸디나비아풍, 쉐인 스타일, 빈티지 등 갖가지 원목 가구가 득세하고 있다. 유행은 지나가는 것이지만 사실 원목 가구는 트렌드와 상관없이 시간이 갈수록 정겨운 미덕을 지녔다. 대중적이면서도 미학적 오라와 양호한 질을 갖춘 한국 디자이너들의 젊은 가구 브랜드가 눈에 띈다. 작가주의 '아트 퍼니처'는 이미 꽤 있었지만, 이들은 소규모 공방이든, 공장과 협업으로 꾸리는 체제든 각기 다른 스타일과 비전을 갖고 '브랜드'를 지향한다. 한국 가구 디자인의 지평을 넓혀가는 젊은 크리에이터들의 활약이 반갑다.



매터앤매터 창업자
이석우(왼쪽), 송봉규

국에서 주거환경학(연세대)을 공부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무사시노 목공대학원에 다닌 이상록 디자이너가 지은 브랜드명이다. 2009년 창업한 그는 2011년 문구 디자이너였던 신하루와 손을 잡고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신하루 디자이너는 업계에서 꽤 유명한 디자인 문구 브랜드 mmmg의 창업 멤버이기도 하다. 주로 화이트 오크, 월넛 등 북미산 하드우드를 이용해 '건강한 삶을 지지하는 가구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애써온 이들은 형태에서 디자이너로서의 개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떻게 쓰이느냐', '주변과 어떻게 어울리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 "일본 말에 '보통이지만 딱 좋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바를 압축한 구절 같아요." 이상록 디자이너는 다행히 한국에서도 온 가족이 즐겁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가구를 지향하는 그들의 철학을 알아주고 내실 있는 소규모 가구 브랜드를 원하는 층이 확대되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했다. 원목 가구도 유행처럼 지나가는 소비 성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다. "원목 가구의 장점을 깊이 알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원목을 사용하는 데 따른 장점, 관리법을 알아가면서 지금까지 몰랐던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예전에 어린이가 가구에 땀을 떨어뜨리거나 상처를 냈을 때 등 대처 방법을 터득할 상황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도 고객과 공유할 접점을 세세하게 챙겨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습니다."

Matter & Matter
우아한 빈티지 업사이클링 가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꿈꾼다

매터앤매터(matterandmatter.com)의 테이블을 보면 천 조각을 약간씩 덧댄 '예술적인 패치워크'가 떠오른다. 인도네시아의 낡은 집, 고물이 된 화물 트럭과 어선 등을 해체해 얻은 오래된 티크 원목을 활용한다니,

지평을 넓히다



카레 클린트 '3인방'
(왼쪽부터)인오준, 장재현, 최의성

Kaare Klint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의 가구 카페를 창인해낸 감각과 비즈니스 마인드

그러한 느낌을 담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 세월의 굴절이 우아하게 묻어나는 매트앤매터의 빈티지 가구는 '업사이클링 디자인'의 진수를 보여준다. 업사이클링(upcycling)은 다 쓴 제품을 재활용하되, 리사이클링과 달리 원래보다 더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100% 수작업으로 완성한다는 매트앤매터 제품은 '고체(古材)라는 소재의 특성으로 투박한 듯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동시에 다리와 다리, 다리와 등받이 만나는 부등 디테일에서는 산업디자인 톨인 3D 모델링 작업을 적용해 예상치 못한 섬세함을 품고 있다. 이 같은 디테일 작업이 가능했던 건 공동 창업자이자 디자이너인 이석우, 송봉규 '듀오'가 삼성전자, 모토로라 같은 첨단 기술 기업에 몸담았던 이력 덕분일 것이다. 이들은 각자 회사에 다니던 시절, "창의적인 오브제를 즐겁게 만들어보자"며 함께 주말에 꾸리는 작업실을 냈다가 둘의 이름 이니셜을 딴 디자인 컨설팅업체 SWBK를 설립했고, 가구 브랜드인 매트앤매터도 운영하게 됐다(현재는 별도 법인). 대표 제품인 레그 চে어와 같은 경우에는 커피 제품이 나올까 애를 먹었을 정도로 인기를 끈 의자다. 책상 위에 연필이나 볼펜을 꽂을 수 있는 단풍나무 펜 트레이 '트로피컬 버드'는 '2013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제품 디자인 상을 받기도 했다.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한 SWBK의 컨설팅 일반 해도 눈이 팽팽할 정도로 비싼데도 이들은 매트앤매터를 구심점으로 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키우려 한다. 이를 위해 가구 생산 기지를 한국으로 옮길 구상도 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가구뿐만 아니라 세라믹, 패브릭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테이블웨어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든 걸 혼자 하겠다는 건 아니다. "저희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나 마음이 열려 있어요. 리빙업계에서 강점을 지닌 타 업체들과 가까이 콜라보레이션할 생각입니다." 실제로 최근엔 유기농 다이닝업체 인 시즌(In Season)과 '슬로푸드'를 선보이는 다이닝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신혼부부들 사이에 이미 꽤 유명한 가구 브랜드 카레 클린트(www.kaarekling.co.kr)는 덴마크의 유명 건축가이자 가구 디자이너의 이름을 딴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스칸디나비아풍'으로 알려져 있다. 목조형 가구를 전공한 홍익대 동기(정재열, 탁의성, 안오준) 3명이 뭉쳐 만든 이 브랜드는 '수제작'을 고집하지만 공방 개념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맞춤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성품'에 가까운 틀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브랜드를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고를 떠안는 대리점 체제보다는 유통 마진을 줄이고 가격을 낮추는 방식을 바꿨다. 그래서 대신 가구 카페라는 참신한 발상을 실천에 옮기게 됐다. 카레 클린트 가구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살린 카페에서 커피도 팔고 가구도 판매하는 것이다.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한 신세대 마케팅 방식이 통했고, 마침 스칸디나비아 가구가 대체로 떠오르는 행운까지 겹쳐 진짜 사업을 하게 됐다. 창업한 이래 파죽지세로 달려온 터라 아직도 졸업을 못했다는 이 대학생 CEO들은 서울 청담동 본점의 쇼룸 겸 퍼니처 카페는 '직영 체제'로 꾸리는 한편 홍대점, 김해점, 그리고 최근 문을 연 수원점 등 지점은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점장'을 두고 운영한다. 월 매출 4억~5억원대로 꽤나 성공적이란다. "취직, 가구 작가, 아니면 스스로 원하는 걸 자유롭게 시도해보는 것,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었지만 저희는 '사업'에 뜻이 맞았어요. 사실 2010년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원목이 이렇게 뜰 줄은 몰랐지요. 처음에는 저희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공장을 찾으러 무려 114에 물어보기도 했어요.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의 파트너인 가구 장인을 만나 생산 체제를 안정적으로 꾸려가게 됐죠. 포장과 배송까지 안 해본 게 없어요." 아직 옛된 티가 역력하지만 4년차 사업가답게 때때로 날카로운 비즈니스 마인드를 느낄 수 있는 면모가 보인다. 스웨덴을 모토로 한 IKEA가 내년이면 한국에 입성할 예정인데 이들은 그 파장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가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잘해야겠죠. 북유럽의 아이콘과 같은 자작나무, 그리고 물푸레 나무로 인기를 모은 이 업체는 이번에 소재의 스펙트럼을 확장해 '오크(oak) 시리즈'를 선보였다. 해리스 트위드, 쿠로키 테닝 등 감각 있는 소재를 입힌 쇼파 시리즈 등 히트작을 내놓아 '협업'에 강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지금은 내공이 대단한 알루미늄 전문 업체 등과 협업을 모색하고 있단다. "나무뿐만 아니라 금속을 적용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직도 할 게 정말 많네요." 지금까지와는 아예 다른 스타일을 갖춘 '2nd 라인'까지 구상 중이라니 역시 거칠 것 없이 진취적인 20대다.



네(내)편한세상



김종상가(왼쪽부터)박길중, 김윤하, 류해욱

김종상가 가구업계의 인디 영화 제작자들

소소한 물건을 주문형으로 제작해주는 목공소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젊은 크리에이터들이 신명나게 작업한 흔적이 보이는, '킬트'적인 느낌마저 드는 작품 수준이 가능한 메이커는 드물다. 김종상가(bellroad, 1px.kr)는 참 재미난 3인의 창작 그룹이다. 목공(가구를 담당하는 박길중, 조명과 식물을 맡은 김윤하, 직물을 다루는 류해욱)이 속해 있다. 3명이 주문, 디자인, 제작, 운송 등 전 과정을 담당한다. 디자인 활동은 각자 자유롭게 하지만 일종의 '연대를 맺은 셈'이다. 창작을 할 때는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기도 하고 고물이나 가증받은 기존 제품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물건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것'이다. 화려하거나 세련되지는 않지만 편안하고 흥미로운 요소로 점철된 개성 만점 디자인이 특징이다. 빨강, 노랑, 파랑을 혼합하되, 한쪽은 동그스름하게 다른 한쪽은 사각으로 만든 비정형의 선반, 의자의 상판이 한쪽으로 길게 돌출해 있어 의자도 되고 테이블도 되고 수납대도 되는 '만능 의자', 돌돌 굴릴 수 있게 밑받침에 바퀴를 달고 뜨개질로 몸체를 열기살기 감싼 화분 등이 피식 웃게 하는 '김종상가'표 디자인이다. 원목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현대의 제한적인 주거환경에서 이동이 간편하고 기능적으로 변형도 가능한 소품과 가구를 독창적으로 적용하고 배합하는 공간을 창출하는 게 이들의 '이상'이다. 그래서 지난 6월에 구슬모이당구장(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이들의 전시 제목이 '네(내)편한세상'이었을 것이다. 김종상가를 처음 시작한 박길중 씨는 "우리에게는 제시하고 싶은 라이프스타일이 있다"며 "누군가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누가 즐거우면 슬도없다고 했냐?"라는 한 가구업계 거장의 말이 떠오른다. **이 매터 고성연**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 스텐의 라인의 실버 인클레 16만5천원 베리스 by 옴티컬 W. 체크 패턴의 장미꽃 부토니에, 핑크 카네이션 부토니에 모두 29만원 **랑방 옴즈**. 플라워 프린트 블랙 타이 19만원 폴 스키스. 보라색 스커어 세이프의 아루아 컵스 링크 30만원대 **오메가**. 블루 플라워 패턴의 핑크 타이 24만원 **에르메네제르도 제나**. 레드 벨벳 보타이 21만원 **랑방 옴즈**. 블랙 래커 C 세이프 데코 미니 클립 30만원대 **까르띠에**. 화이트 고인 장식의 부토니에 15만원 **휴고 보스**. 엔드브란 해마 모티브 부토니에 8만원 **아르티 by 10 코르스 코오**. 신사의 옷장에서 영감을 받은 세븐 라인 데코 라이터 1백만원대 **까르띠에**. (라이터 위) B 로고기 새겨진 로타이팅 진동 추가 프린트인 컵스 링크 1천만원대 **브레게**. 에메랄드와 1백32개의 다이아몬드로 새겨진 팬더 드 카르띠에 컵스 링크 3천3백만원대 **까르띠에**. 화이트 원석과 골드 메탈이 리서리한 컵스 링크 가격 미정 **롤렉스**. 엘시 모티브 컵스 링크 30만원대 **타파니**. 팔각형의 블랙 오닉스 오토 컵스 링크 2백만원대 **볼카리**. 앤 오렌즈 하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도트 패턴의 핑크 타이 12만원 **롤렉스**. 깃털 부토니에 4만원 **엔드메이스터 by 10 코르스 코오**. 후기 르네상스의 화려함과 정교한 디테일을 다룬 2013 루도비코 스포르차 만년필 3백90만원 **몽블랑**. 에디터 권유진

옴티컬 W 02-6911-0845 **랑방 옴즈** 02-6905-3496 폴 스키스 02-3447-0278 **오메가** 02-511-5797 **에르메네제르도 제나** 02-511-0285 **휴고 보스** 02-515-4088 **10 코르스 코오** 02-3018-1010 **까르띠에** 1566-7277 **브레게** 02-3438-6218 **롤렉스** 02-6905-3534 **타파니** 02-547-9488 **볼카리** 02-2056-0172 **몽블랑** 02-3485-6627

romantic Perfection

똑같은 티셔츠를 입어도 어떤 액세서리를 매치하느냐에 따라 그 분위기는 천차만별. 패션은 한 곳 차이로 좌우된다는 말이 있듯 작은 액세서리 하나로 스타일의 품격이 달라질 수 있다. 럭셔리한 컵스 링크부터 실크 넥타이, 멋스러운 부토니에까지, 웨딩 룩을 더욱 근사하게 완성해줄 남성 액세서리.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장영진

HAMILTON
AMERICAN SPIRIT • SWISS PRECISION



KHAKI NAVY SUB

AUTOMATIC SWISS MADE - WWW.HAMILTONWATCH.CO.KR

갤러리아백화점 대전점 센터시티점 롯데백화점 본점 강남점 광주점 구리점 김포공항점 노원점 대구점 대구영플라자점 대전점 동래점 부산점 분당점 상인점 센텀시티점 스타시티점 안산점 영등포점 울산점 인천점 일산점 잠실점 중동점 청량리점 청주영플라자점 평촌점 포항점 안양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경기점 센텀시티점 영등포점 의정부점 인천점 총창점 AK플라자 구로본점 분당점 수원점 원주점 평택점 현대백화점 본점 동구점 대구점 목동점 무역센터점 미아점 신촌점 울산점 중동점 총창점 킨텍스점
DONGWHA DFS LOTTE DFS MAIN COEX WORLD BUSAN SHILLA DFS SEOUL INCHEON AIRPORT WALKERHILL DFS



Love and you

별빛처럼 찬연히 빛나는
 다이아몬드의 황홀함은 모든 연인을
 축복한다. 순수하고도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웨딩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igh Jewelry Rings

(리안을 따라 흐르는 반지 왼쪽 윗부터) 손가락을 다이아몬드로 감싼 듯한 느낌을 주는 하이 주얼리 프랑주 링(Franches Ring)은 마드루아젤 사블로이 의상의 술(fringe) 장식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것이다. 다이아몬드 하나 하나가 흔들리면서 아름다운 빛의 효과를 보여주는 디자인으로, 1932년 사블의 첫 번째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서도 등장한 바 있다. 18K 화이트 골드에 4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1,297개와, 62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5,207개를 사용했다. 정교하게 이어진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와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가 인체적이고 유려한 곡선을 표했다. 가격 미정 **사블 화인 주얼리**, 태양에서 영감을 받은 솔레일 링(Soleil Ring), 역동적인 에너지를 사용했던 사블의 산성을 보여주는 컬렉션이다. 강렬한 태양의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 2.24캐럿 오벌 컷 옐로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2,487개에 달하는 3백87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마치 폭포처럼 세팅했다. 사블 화인 주얼리의 유니크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디자인이다. 가격 미정 **사블 화인 주얼리**, 세계 최초로 밴드와 다이아몬드를 6개의 프랑분할링, 다이아몬드를 떠받치고 있는 지지대를 이용해 분리한 디자인. 다이아몬드를 밴드 위로 완전히 들어 올려 빛이 하단까지 통과해 스톤의 광채를 극대화한 디자인이다. 여성들이 프러포즈 링, 웨딩 링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티파니의 시크너리 링이다. 1캐럿 기준 1천만원부터. **티파니**.

Tiffany Key Collection

(왼쪽 모양 너크리스 윗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티파니 아카이브에 보관된 1880년대 빈티지 열쇠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킨 키 컬렉션.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여는 열쇠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바이올렛 컬러 티파니 이트 나비를 새긴 인헌트 드래곤플라이 키, 블랙 오크스를 매치한 다이아몬드 블랙 오크스 옥타곤 키, 로즈 골드 에픽 크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플리모 드 리 키, 스퀘어 형태에 다이아몬드를 생생하게 세팅한 그레이스 키 참, 귀환 옐로 다이아몬드를 중앙에 세팅한 옐로 다이아몬드 인헌트 키 모두 가격 미정 **티파니**.



Couple Rings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타파니 파이노 컬렉션** 타파니 고유의 18K 사쿠라 골드 소재로 밴드를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디자인한 유니크한 컬렉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여성용 솔리테어 링 6백만원대, 남성용 밴드 링 1백60만원대. **스파드 워딩 컬렉션** 일음 조각에서 영감을 받은 큐브로 이루어진 아이스 큐브 밴드 링 2백만원대, 시링스로운 신부를 더욱 돋보이게 할 0.5캐럿 히트 컷 다이아몬드 솔리테어 링 1천만원대. **소피 드루시드 컬렉션** 프랑스, 페션과 주얼리의 중심인 병동광경의 기능을 플래티넘으로 표현한 컬렉션. 0.3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솔리테어 링 7백만원대, 남성용 밴드 링 3백만원대. **카버피에 트리브니 컬렉션** 옐로 골드, 화이트 골드, 핑크 골드 등 세 가지 컬러의 하모니로 완성한 워딩 밴드 2백만원대, 0.23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솔리테어 링 4백8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베를리 컬렉션** 정교한 비즈 장식 모티브로 남성용 여성 모두에게 우아함을 선사하는 디자인. 다이아몬드 세팅 솔리테어 링 1천만원대,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밴드 링 3백만원대. **타파니 인그레인 컬렉션** 심플하지만 오래도록 사랑받고 있는 타파니의 스테디셀러 인그레인 컵플 링. 플래티넘에 옐로 골드를 매치한 디자인으로 두께 6mm 밴드 링은 3백만원대, 3mm 밴드 링은 1백만원대. **타파니 이블라스 컬렉션** 타파니 뉴욕 본사 건물 외벽 시계의 로마숫자에서 모티브를 얻은 대표적인 컬렉션. 밴드 사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이블라스 오픈 다이아몬드 링 5백만원대, 가운데 브리지 부분에만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이블라스 오픈 3-다이아몬드 링 2백만원대. **피아제 포제션 워딩 컬렉션** 360도 회전하는 2개의 밴드가 겹쳐 있는 독특한 콘셉트의 링. 외관상으로는 심플하지만 자유롭게 움직이는 요소 때문에 더욱 특별한 느낌이다. 심플한 밴드 링 2백80만원대, 다이아몬드 세팅 밴드 링 6백90만원대. **다이아니 다사이드 컬렉션** 사이드에 숨겨져 있는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운 클래식한 컵플 링. 다이아몬드의 개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풀 피에 링 9백만원대, 화이트 골드 링 2백만원대. **사벨 와인 주얼리 울트라 미니 솔리테어 컬렉션** 세라미 밴드에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 0.27캐럿을 세팅한 유니크한 디자인의 컵플 링. 화이트와 블랙 중 선택할 수 있다. 각 5백90만원. **부세인 퀴트르 컬렉션** 초콜릿 컬러의 골드로 정교하게 완성한 브랜드의 시그니처 컬렉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여성용 솔리테어 다이아몬드 링 8백만원대, 심플한 디자인의 남성용 밴드 2백만원대. **블가리 비. 제로원 컬렉션** 나선 모티브에 블가리 더블 로고 디자인이 돋보이는 컬렉션 링. 심플한 1밴드 링 1백만원대, 중앙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솔리테어 링 7백만원대.

Ladies' Watches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사벨 와인 주얼리 2013 프리미에르 워치** 올해 새롭게 선보인 2013년 버전의 프리미에르 워치. 파리 방문광경과 사벨 넘버 5 황수병 투경에서 영감을 받은 광경형 케이스가 시그니처다. 베젤에 56개의 브라운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사벨 2.55백의 채인용 브레이슬릿 디자인에 적용했다. 케이스 사이즈 34mm, 코-엑시얼 8521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4천1백만원대. **해리 윈스턴 프리미에르 레이디스 화이트 골드** 자개 다이얼을 매치하고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순수한 신부의 느낌을 그대로 담은 워치. 우아한 해리 윈스턴 워치의 여성미를 아름답게 표현했다. 6천만원대. **에르메스 아쇼 타임 사스밴드** 에르메스 워치의 클래식인 아쇼 컬렉션 중 워치의 기능을 압도하지 않고도 다이얼 위의 시간을 장식시킬 수 있는 독특한 콘셉트의 워치다. 38mm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라즈베리 컬러 엘리게이터 스트랩을 매치해 우아하다. 3천5백만원대. **예거 르쿨트르 황데뷰 나인 엔 데이** 클래식 워치의 우아한 요소를 담은 황데뷰 워치. 아르데코 스타일의 이클리어컷 인테스와 기묘세 패턴의 다이얼이 낭만적이다. 6시 방향의 인디케이터는 낮과 밤을 알려주는 기능을 갖는다. 60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더했다. 1천9백만원대. **올라스 나르텐 듀얼 타임 워치** 2개의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 시간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듀얼 타임 시스템 워치. 독특한 그레이 컬러 워치에 부분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더했다. 9백80만원. **브레게 레인 드 네이플 8967ST** 브레게 여성 워치의 상징인 레인 드 네이플의 스틸 버전. 나폴리 여왕이자 니콜레옹의 여동생이었던 카롤린 유리를 위해 만든 최초의 손목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여성 워치의 걸작으로 재해석했다. 1천9백만원대. **타파니 빅토리아 네크리스** 시계가 걸려 있는 다이아몬드 라인은 플래티넘에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한 타파니의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다. 장금장자에 마크스 컷 다이아몬드로 꽃잎을 표현했다. 가격 미정.





Propose Rings

(첫 번째 줄 왼쪽부터) 블루이 느껴지는 노보 링 1캐럿 기준 3천원대부터,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밴드가 줄어가는 허모니 링 1캐럿 기준 2천원대부터, 6개의 프롱으로 세팅한 티파니 세팅 링 1캐럿 기준 1천원대부터, 클래식 오벌 옐로 다이아몬드 링 1캐럿 기준 3천원대, 리듬 같이 느껴지는 재즈 밴드 링 6백원대, 쿠션 컷 다이아몬드 주변에 다이아몬드를 비즈 세팅한 솔리스트 링 1캐럿 기준 3천원대부터, 스카이 모양으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루시다 링 1캐럿 기준 2천원대부터, 노보 밴드 링 3백원대 모두 **티파니**, (두 번째 줄 왼쪽부터) 꽃 모양의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까멜리아 파벳 워딩 밴드 4백37만원, 핑클 패션을 주안으로 착용한 0.4캐럿 다이아몬드 세팅 마들리네 워딩 링 8백93만원, 활짝 핀 동백꽃을 표현한 필드 까멜리아 링 1천7백30만원, 마들리네 워딩 밴드 2백13만원, 마치 2줄처럼 보이는 밴드 가운데 0.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까멜리아 솔리테어 링 1천7백2만원, 심플한 디자인이 멋스러운 0.5캐럿 다이아몬드 세팅 C 시그니처 링 8백90만원, 리본 모티프에 1.02캐럿 패어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부글 드 디아망 링 6천7백37만원, 블랙 세라믹과 다이아몬드를 매칭한 울트라 링 3백58만원 모두 **샤넬** 주얼리, (세 번째 줄 왼쪽부터) 1.8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워딩 밴드 1천원대, 0.71캐럿의 센터 스톤을 원형 비즈 세팅으로 볼륨을 더한 데스티네 솔리테어 링 2천원대, 다이아몬드 밴드에 0.71캐럿 스톤을 세팅한 솔리테어 1895 파베 링 2천5백원대, 1.04캐럿 다이아몬드가 감싸고 있는 발레리 링 4천4백만원대, 브랜드 로고와 작은 다이아몬드를 매칭한 인그레이드 워딩 링 3백90만원대, 총 1.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워딩 밴드 1천3백만원대, 4개의 프롱으로 0.74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솔리테어 1895 링 1천4백만원대, 리브 링에 0.2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리브 솔리테어 링 4백70만원대 모두 **카르티에**, (네 번째 줄 왼쪽부터)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비 제로엔 1밴드 링 8백원대, 다이아몬드 1.25캐럿을 세팅한 코르나 솔리테어 링 5천8백만원대, 2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메리미 하이 주얼리 링 가격 미정, 에메랄드 오벌 컷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운 그라페 링 가격 미정, 1.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배너이 클래식 링 6천3백만원대 모두 **블리자드**, 꽃송이 모양 스페셜 클래식 링 1천9백만원대, 3개의 꽃송이가 이어진 아비모네 링 4백만원대, 심플한 미니우 링 6백만원대 모두 **다미아니**, (다섯 번째 줄 왼쪽부터) 리본 모양 유선형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페르페트 링 17백만원대, 파베 세팅된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망스 링 1천9백만원대, 1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를리 솔리테어 링 1천원대, 함께 매칭한 베를리 가스 링 1백만원대 모두 **반올리프 이젤**, 0.3캐럿 다이아몬드 양끝에 작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아이비레 링 5백90만원대, 0.3캐럿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브르문데 링 6백90만원대, 함께 매칭한 피아체레 가스 링 2백90만원, 피아노 클래식 솔리테어 링 6백만원대, 다이아몬드 1캐럿을 세팅한 피아체레 솔리테어 링 3천원대 모두 **타사키**, (여섯 번째 줄 왼쪽부터) 조세핀 클래식 타이마라 페어 컷 링 4천8백만원대 **쇼페**, 0.2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파셋트 솔리테어 링 4백만원대, 0.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고드론 솔리테어 링 8백만원대 모두 **부시넬**, 광방울 형태의 헤비 다이아몬드 링 1천원대 **쇼피드**, 다이아몬드를 팔 패베 세팅한 포세핀 액티브 링 2천4백만원대 **피아제**, 성대한 세공의 클로세 링 2천원대, 장미 꽃잎을 표현한 1캐럿 세팅 브랑슈 링 2천원대 모두 **루시에**, 심플한 다이아몬드 인터레스 링 8백만원대 **에이치스틴**.

Men's Watches

(왼쪽부터 순서대로) **노보 모티에르 클래식** 18K 로즈 골드와 깔끔한 화이트 에-펠 다이얼의 우아한 모습이 아름다운 워치, 시간과 분위기를 한눈에 보여주는 워치 디자인은 보베의 시그니처다. 백 케이스에는 장인이 손으로 직접 인그레이빙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 2천5백40만원. **오메가 스피드 마스터 오션 600M 쿼츠** 클래식 오메가와 바다의 결합하고 오랜 관계를 기념하기 위한 워치, 오메가 쿼츠-액시얼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9백만원대. **해리 윈스턴 마드라잇 빅 데이브**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미드-라잇 클래식 남성 바진. 42mm의 볼드한 케이스에 72시간 파워 리저 브로는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탑재했고 빅 데이브라는 이름에 걸맞게 6시 방향에 위치한 인디케이터는 날짜를 표시한다. 새로운 버전의 클래식 워치를 원하는 남성에게 제격이다. 4천만원대. **우블로 빅벤 스틸 세라믹** 우블로를 지금의 반열에 오르게 한 빅 벤 워치. 44mm로 볼드한 케이스에 구조적인 무늬가 들어 있는 리브 스트랩을 매치해 착용감이 뛰어나다. 우블로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로 볼레 카본 다이얼과 스틸, 세라믹, 리버의 조화가 완벽하다. 1천7백만원대. **IWC 인터나이어 크로노그래프 레이서** 울메 메르세데스 AMG 페트로나스 포뮬러 원팀의 공식 엔지니어 링 파트너가 된 것을 기념하는 워치. 백 케이스에는 F1 마신이 새겨져 있다. 크로노그래프 베젤의 속도를 이용해 자동차 속도를 계산할 수 있고 88시간 파워 리저브이며, 칼라버 8836을 장착했다. 1천5백만원대. **브래게 타인 XXLL 10Hz** 프랑스 공군을 위해 1960년 탄생한 타임 XX 탄생 50주년을 기념해 재출시한, 진동수가 가장 높은 워치. 44mm로 볼드한 디자인이지만 무게를 줄여 높은 진동수에도 견딜 수 있도록 했다. 캐주얼하고 기능이 뛰어난 워치를 원하는 남성에게 추천한다. 셀프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기능의 칼라버 583F를 장착했다. 2천만원대.



Bold Rings

(왼쪽부터 순서대로) 20개의 바켓 컷을 세팅한 밴드에 5.21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하이 주얼리 다이아몬드 링 가격 미정 **까르띠에**, 18K 화이트 골드 바위에 6mm 아크아 진주와 0.5캐럿 다이아몬드의 배치가 아름다운 발렌스 솔로 링 1천7백만원대 **타사키**, 리본 모티브 루방 링 1천7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황은을 상징하는 유성 모양 고포드 칼렉션 링 4천3백52만원 **샤넬 화인 주얼리**,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풀 파세 세팅한 비 제모원 링 1천7백만원대 **불가리**, 크로셋을 모티브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레스크 링 1천7백만원대 **다이아니**, 반지가 걸려 있는 20캐럿에 달하는 68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테나스 네 크리스 가격 미정 **까르띠에**.

Couple Watches

(왼쪽부터 순서대로) **에르메스 그랑 클로버** 론 워치 10시 반생 35주년을 기념해 컴플리케이션 기능을 다한 칼렉션, 10시 방향에 문패이즈와 날짜를 함께 보여주는 화이트 다이얼 그랑 론 워치는 남성에게, 10시 방향에 문패이즈 창을 우아하게 매치한 블랙 다이얼 론 워치는 여성에게 잘 어울린다. 각 9백만원대. **오메가 드립 크로노그래프** 우아한 드레스 워치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오메가의 드립 워치, 클래식한 디자인에 갈라져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춘 코-엑스칼리버 9301을 탑재했다. 18K 레드 골드 케이스에 악어가죽 스트랩을 매치했다. 3천4백만원대.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스타** 다이얼에 빛나는 별 모티브를 다한 컨스텔레이션이 새로운 칼렉션.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모두 18캐럿 골드를 사용했다. 케이스가 24mm로 작아 여성스럽다. 1천7백만원대. **위블로 클래식 퓨전 골드 오 팔린** 30년 전 위블로의 클래식한 디자인에 현대적인 느낌을 조화한 클래식 퓨전의 7분형, 42mm 케이스로 위블로가 추구하는 콘셉트를 여성화 보여준다. 18K 레드 골드 케이스와 베젤, 바 인테스를 사용해 심플한 디자인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추천한다. 3천만원대. **위블로 클래식 퓨전 티타늄 다이아몬드 피에** 위블로의 담백한 디자인은 그대로 두고 케이스 사이즈를 여성의 손목에 어울리게 33mm로 줄인 워치. 티타늄 케이스와 베젤에 세팅한 0.75캐럿 다이아몬드가 우아함과 유니크함을 함께 선사한다. 1천1백만원대. **브래네 트래디션 칼렉션 7027** 무브먼트 그 자체로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브래네의 수동 와인딩 무브먼트 시그너처 워치. 무브먼트의 모든 요소를 드러내는 움직이는 우아하고 아름답다. 브래네 고유의 블루 핸즈와 브래네 로고가 클래식함을 더한다. 37mm 케이스에 핑크 알리기에터 스트랩을 매치한 여성용 워치는 모델 넘버 7027, 40mm로 볼드한 케이스의 매트 그레이 컬러 남성용 워치는 모델 넘버 7057로 각 3천만원대. 시계를 깊게고 있는 골송이로 가득한 네크리스는 까르띠에 브로데 네크리스. 18K 화이트 골드에 21.27캐럿에 달하는 3천2백63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샤넬 화인 주얼리**, **에디터 베이진** (* 본 화인에 소개된 다이아몬드는 크와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오메가 02-511-5797
- 브랑게 02-3438-6218
- 브네 02-2192-9628
- IWC 02-2639-1950
- 위블로 02-540-1356
- 올리스 니르덴 02-2192-9627
- 해리 윈스턴 02-540-1356
- 에저 르몽트르 02-756-0300
- 에르메스 02-3448-0782
- 타사키 02-3461-5558
- 쇼메 02-3442-3159
- 루시예 02-512-6732
- 타파니 02-547-9488
- 불가리 02-2056-0172
- 쇼피드 02-6906-3390
- 까르띠에 1566-7277
- 에이치스틴 02-515-1945
- 반클리프 아펠 02-3440-5660
- 샤넬 화인 주얼리 02-3442-0982
- 피아제 02-540-2297
- 부쉐론 02-543-6523
- 다이아니 02-3467-8972



Lucida Ring

the perfect Ring

모든 여자의 꿈, 티파니의 다이아몬드 세팅은 더할 나위 없이 정교하다.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더 빛나는 티파니 다이아몬드 웨딩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Tiffany Setting Ring



Harmony ring



(오른쪽 목걸이부터 시계 방향으로) 빅토리아 컬렉션 클라워 모티브로 꽃잎을 이루는 마카즈 컷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한 맨드릴 네크리스와 귀에 밝는 스타일의 스톤드 아이링, 루시다 링 정사각형에 가까운 높은 개단 형태로 디자인된 불꽃감 넘치는 웨딩 링, 특허 받은 티파니의 세팅이다. 티파니 세팅 링 웨딩 링의 대명사이자 결혼반지 디자인의 시초가 된 티파니 세팅 링, 최초로 밴드와 다이아몬드를 분리한 디자인으로, 빛이 하단까지 통과해 다이아몬드의 광채가 살아난다. 6개의 발톱(프롱)이 티파니 세팅을 상징한다. 솔리스트 링 사각형 쿠션 컷 다이아몬드를 2줄의 비즈 세팅 다이아몬드가 감싸고 있어 더욱 화려하다. 샬레브레이션 링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의미의 샬레브레이션 링, 다양한 디자인의 링을 겹쳐서 착용한다. 겹쳐 오는 3개의 반지 중 맨 아래 링크 사파이어를 중간에 세팅한 디자인과 가장 위쪽 링크는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반지는 모두 스월 링, 가운데 꽃잎 모양을 반복해서 세팅한 볼드한 디자인은 빅토리아 컬렉션의 얼터네이티브 링. (오른쪽 작은 돋보기) 하모니 링 리운드 브랜던트 컷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밴드의 양끝이 모자이크 로제트 패턴을 이루는 링, 모두 티파니. 문의 02-547-9488 에디터 배미진



꿈꾸던 휴가, 그 이상의 행복 **Club Med**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따스한 햇살 속으로 떠나는 겨울 휴가를 꿈꾼다면
겨울 SUN 휴가 조기예약 BIG BONUS 2
리조트 최대 40% 할인 + 5만원 특별 할인!

해당 리조트 : 발리, 푸켓, 빈탄, 체러팅, 카비라, 중국 계림, 물디브 카니
출발일 : 2013년 11월 ~ 2014년 4월 예약기간 : 8월 31일까지
본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클럽메드 예약과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02-3452-0123
www.clubmed.co.kr

Haute classic

랄프 로렌을 대표하는 리키 백이 사랑받는 이유는 클래식한 디자인과 최상급 소재, 정교한 디테일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멋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경쾌한 스타일의 소프트 리키 백과 럭셔리인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엘리제이터 리키 백은 예단 백으로도 제격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시간을 초월한 클래식한 아름다움, 리키 백
 혼수의 필수 품목이 되어버린 명품 가방. 클래식한 디자인은 물론 유행을 타지 않는 고급스러운 컬러와 최고급 소재,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견고한 디테일은 예단에 들어가는 핸드백이 갖춰야 할 조건이다. 예단 백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는 바로 랄프 로렌이다.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리키 백은 디자인이 아니라 랄프 로렌이 자신의 아내이자 뮤즈인 리키 로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가방으로, 클래식한 스타일과 최고급 소재, 정교한 디테일로 미국 상류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엘리제이터 리키 백은 최상위 등급의 악아가죽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배 가죽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정교한 태닝 기법으로 촉감과 컬러가 남다르다. 경쾌하고 캐주얼한 룩을 즐긴다면 가격대가 합리적인 소프트 리키 백을 추천한다. 부드럽고 유연한 소재 가죽으로 가방 양옆을 조절해 두 가지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으며, 안쪽에 화려한 컬러를 더해 더욱 감각적이다. 블랙, 브라운 등 클래식한 컬러부터 레드, 퍼플, 블루 등 선명한 컬러까지 25가지의 다양한 컬러 팔레트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얼마 전 제 시카갈리가 보라색 소프트 리키 백을 든 모습이 파파라치 컷에 포착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리키 백의 모든 공정은 이탈리아에서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짐금장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랄프 로렌의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가죽과 컬러, 인감 등을 선택하고 이나설을 새기는 '메이드 투 오더' 리키 백을 제작할 수 있어 남들과는 차별화된 품격과 가치를 원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충족감을 선사한다. 문의 02-545-8200 에디터 **이예진**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레드 컬러 소프트 리키 백 31X30cm 2백만원대, 세련된 브라운 컬러와 그린 컬러의 악아가죽 리키 백 33.5X27cm 2천만원대, 브라운 컬러와 진한 퍼플 컬러의 소프트 리키 백 31X30cm 2백만원대.



꿈꾸던 휴가, 그 이상의 행복 **Club Med**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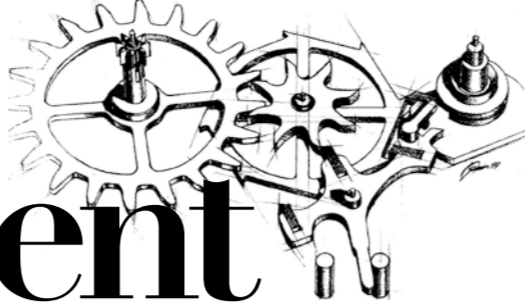
무료 강습, 리프트권까지 포함된 황제 스키를 꿈꾼다면
겨울 SKI 휴가 조기예약 BIG BONUS

BONUS1 리조트 최대 40% 할인 **BONUS2** 10만원 특별 할인! **BONUS3** 선착순 100명 한정! 스키 또는 스노보드 무료 렌탈!

해당 리조트 : 일본 사호로, 중국 야불리
 출발일 : 2013년 11월 중순 ~ 2014년 3월 예약기간 : 8월 31일까지
 본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클럽메드 예약과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02-3452-0123
 www.clubmed.co.kr

the great Movement



드디어 국내에 진정한 기계식 시계의 시대가 열렸다. 지난 7월 스위스 시계 브랜드 오메가가 개최한 <코-엑시얼 전시회>는 브랜드의 명성을 전하는 것을 넘어, 정교한 무브먼트만으로 작동하는 기계식 시계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전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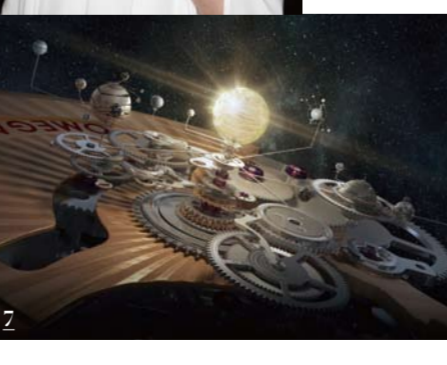


작은 디테일의 위대한 이야기, 코-엑시얼 무브먼트
 오로지 브랜드와 디자인만 보고 시계를 선택하는 시대는 지났다.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시계가 아니라, 착용한 사람과 호흡할 수 있는, 외부 동력 없이 작동하는 기계식 시계, 까다롭게 완성한 무브먼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지난 7월 4일 청담동 비อนด์ 갤러리에서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스위스 기계식 시계의 원리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오메가의 <코-엑시얼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어렵게 들리는 전시회의 주제인 '코-엑시얼'은 세계적인 스위스 시계 브랜드 오메가에서 직접 제작하는 무브먼트에 장착된 특정한 부품, 탈진기(escapement, 규칙적인 시간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스프링이 풀렸다 감겼다 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규칙적으로 진동하는데, 시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시계의 심장'이라 불린다)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탈진기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위대한 발명가이자 워치메이커였던 조지 다니엘스는 기존 스위스 탈진기의 최대 약점인 기름 응고 문제를 보완해 완전히 새로운 탈진기를 개발했다. 모든 시계 브랜드가 이 탈진기 장착을 거절했지만 오메가는 1999년 최초로 코-엑시얼 탈진기를 장착한 '코-엑시얼 2500 무브먼트'를 탑재한 모델을 선보이며 무브먼트 개발의 선구자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 새로운 탈진기를 장착한 무브먼트는 기존의 무브먼트에 비해 마찰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효율성과 시간 측정 능력을 모두 높이는 혁신적인 결과를 낳았다. 오메가는 이러한 코-엑시얼 무브먼트의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고 기계식 무브먼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전시를 개최했다.

시계 역사에 획을 긋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태엽과 마주하게 되는데, 이는 기계식 시계와 코-엑시얼 무브먼트를 상징하는 설치물이다. 이 놀라운 무브먼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장 중앙에서는 '코-엑시얼 무브먼트'를 표현한 애니메이션이 상영되었고, 복잡한 기계적 요소를 더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중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2013년 바젤에서 선보인 오메가의 새로운 컬렉션인 4개의 존으로 나누어 소개한 공간. 올해 최초로 선보인 오메가만의 독점적인 골드 18K 세트나TM를 사용한 워치, 킨스텔레이션 세트나TM는 물론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스피드마스터 블랙 세라미, 오메가의 여성 라인을 대표하는 뉴 레이디매틱까지 코-엑시얼 무브먼트를 탑재한 다양한 신제품을 전시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우주를 테마로 한' 스피드마스터 블랙 세라미-달의 어두운 이면을 전시한 스피드마스터 라인은 전시장을 찾은 남성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물론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모든 제품은 오메가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코-엑시얼 무브먼트를 장착하고 있다. 시계의 생명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시간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오메가가 선택한 코-엑시얼 탈진기, 이를 장착한 코-엑시얼 무브먼트의 가치는 시계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스위스 브랜드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군을 갖춘 빅 브랜드인 오메가가 이러한 무브먼트를 주제로 전시를 개최했다는 것은 국내 시계 시장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만한, 주목할 만한 행보다. 기계식 시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기폭제가 된 이번 전시를 통해, 무브먼트의 중요성, 기계식 시계의 정밀함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 문의 02-3149-9573 에디터 배미진



1 비อนด์ 갤러리에 마련된 전시장
 2 코-엑시얼 무브먼트의 구조를 정교하게 표현한 배너
 3 코-엑시얼 무브먼트를 탑재한 오메가의 레이디매틱, 피아스티 아쿠아 테라 애크얼 컬렉션
 4 코-엑시얼 탈진기를 장착한 무브먼트의 모습
 5 전시장을 방문한 배우 김사랑
 6 3D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코-엑시얼 무브먼트



inpres X C's

핀을 향해 하늘 높이 날아가는 아름다운 샷! 나도 모르게 우월감이 느껴집니다.

야마하의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는 세계 항상 놀라움의 대상입니다.



왼쪽부터 (여자 1) 블루투시도 재킷, 블랙 팬츠, 블랙 보타이
 모두 톨포드, 남자 1 쇼트 권오수 클래식, 블랙 레이스업
 슈츠 디올, (남자 2) 님브라운 베스트, 화이트 셔츠 톨포드,
 브라운 턱시도 재킷, 블랙 셔츠도 팬츠 브리오니,
 블랙 보타이 권오수 클래식, 블랙 슈츠 버버리 프롬션,
 (여자 2) 빈티지한 화이트 드레스 타이러, 장갑 모두 힐리아
 웨딩, 크리스탈 이어링 스텐워르브스키, (여자 3) 컬러 핏츠
 핑크, 핑크 스트랩 슈츠 모두 톨다, 초주홍 네그리브 샬,
 (여자 4) 블랙 레이스, 그레이 베스트, 핑크 스카트 모두
 랑방, 핑크 이어링 에어리스, 핑크 스와르브스키 네그리브
 핑드한리, 주얼 플린치 모두 스텐워르브스키,
 (여자 5) 레드 옹블루 스텐워르브스키 카이프, 1.1트 원피스
 모두 에르메스, 골드 지수 블랙 레이스 핑크 로렌 컴베션,
 핑크 링, 골드 이어링 모두 스텐워르브스키.



One Fine Day

내 친구의 결혼식. 저마다 개성이 담긴 룩으로 한껏 맛을 낸 그들이
 잊지 못할 아름다운 순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photographed by kim taek cun*



화이트 튜브 뷔스티에, 페플럼
 디테일의 화이트 스카트 모두 디올,
 핑크 이어링 에어리스 스텐워
 크리스탈 링 슈엘, 크리스탈 헤어
 피스 힐리아 웨딩.



(남자) 블랙 티셔츠, 화이트 턱시도 셔츠
 모두 에르메네제질도 제나, 블랙 보타이 권오수
 클래식, 블랙 레이스업 슈즈 디올, (여자) 페플럼
 스타일미 레이스 웨딩드레스, 헤어 장식, 레이스
 장갑 모두 힐리아 웨딩, 빅토리아 알테네이팅
 후프 이어링, 아틀라스 오픈 다이아몬드 링
 모두 티파니, 실퍼 핑프스 슈름마보니.



(남자) 그레이 체크 수트
 칼프 로렌 퍼플라벨, 대님 핀터 셔츠
 디올, 아이보리 터틀넥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여자) 레드 오프숄더 재킷,
 레드 스커트 모두 나나 리치,
 하이 주얼리 드롭 네크리츠,
 다이아몬드 이어링, 슬라테어 링,
 새틴 링 모두 카르띠에.



(왼쪽) 브라운 패턴 원피스, 블랙 벨트 모두 보테가 베네타, 플라워 모티브 이어링 스와로브스키, 그레이 모피 미니 백 토즈, (가운데) 핑크 트윈드 스톤 재킷, 핑크 튜브 드레스 모두 마이클 코어스 컬렉션, 진주 네크리스 미네타니, 화이트 드롭형 이어링 펜튼 by 반지크, 크리스탈 링 스와로브스키, (오른쪽) 네이비 벨벳 원피스 팔코 로렌 컬렉션, 골드 클러치 백시 곤잘레스, 크리스탈 링과 이어링 모두 미네타니.



(왼쪽) 브라운&그린 체크 슈트, 화이트 셔츠, 브라운 타이, 블랙 쉘시 부츠 모두 구찌, (가운데) 브라운 컬러 원피스, 페이턴트 T 스트랩 슈즈 모두 구찌, 벨런스 다이아몬드 파베 링, 데이지 링, 페탈 링 모두 타사키, 빅토리아 앨타네링 후프 이어링 티파니, 골드 세르펜티 백 볼가리, (오른쪽) 그레이 & 블루 체크 슈트, 블루 플, 스카프, 블랙 부츠 모두 구찌.



(왼쪽) 클라워 자수 프린트 그린 러플 원피스 모스키노, 버건디 컬러 블록 클러치 펜디, (가운데) 핑크&그린 체크 플 요트, 브라운 벨트 모두 프리다, 클라워 진주 아이링 에어리스, (오른쪽) 버건디 재킷 블루&화이트 체크 셔츠, 그레이 니트, 그레이 체크 팬츠 모두 프리다, 네이비 보타이 권오수 클래식, 골드 프러임 인경 트리터.

(왼쪽) 레드 슬리브리스 원피스 버버리 프로섬, 골드 스텝 스트랩 핑프스 파치오티, 레드 아이링 에어리스, (가운데) 블랙 수트, 그레이 셔츠 모두 버버리 런던, 그레이 타이, 블랙 셔츠 부츠 모두 버버리 프로섬, (오른쪽) 브라운 레오파드 원피스 버버리 런던, 블랙 레더 재킷, 블랙 웨지 핑프스 모두 버버리 프로섬, 레드 클러치 낸시 곤잘레스, 클라워 모티브 체인 네크리스 스와로브스키.



헤어 강현진
메이크업 오미영
모델 황화, 노마함, 이송, 윤소정, 박자수, 임솔미
부케 & 부토니에 제작 더스타 웨딩 & 파티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어시스턴트 김혜민, 진성훈
에디터 권유진

- 구찌 02-3444-3169
- 버버리 런던 버버리 프로섬 02-3485-6536
- 펜디 02-2056-9022
- 프리다 02-3442-0939
- 랑방 02-6905-3582
- 디올 02-513-3232
- 롤 포드 02-6905-3534
- 발프 로렌 컬렉션 - 발프 로렌 파올라벨 02-545-8200
- 토즈 02-3448-8105
- 에르메스 02-547-0437
- 까르띠에 1566-7277
- 티파니 02-547-9488
- 타사키 02-3461-5558
- 샤넬 02-546-0228
- 보태가 베네타 02-515-2717
- 에르메네질도 제냐 02-6905-4790
- 권오수 클래식 02-514-1222
- 에어리스 02-512-1463
- 브리오니 02-6905-3760
- 필리아 웨딩 02-544-0520
- 스와로브스키 02-517-2082
- 나나 리치 02-2076-7627
- 마이클 코어스 컬렉션 02-546-6090
- 반 지크 02-3446-5681
- 낸시 곤잘레스 02-6905-3534
- 미네타나 02-3443-4164
- 불가리 02-2056-0172
- 모스키노 02-2118-6138
- 트리티 02-3446-8556
- 파치오티 02-545-8757
- 수엘 02-3444-1708

* 본 화보에 나온 제품의 상세한 가격 정보는 (스타일 조션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tylechosun.com



Soft Eyes

섬세하고 연약한 눈가 피부엔 생크림같이 부드러운 질감의 럭셔리 아이크림이 제격.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스티 로더 리-뉴트리브 리-크리에이션 아이밤&나이트 세럼 포 아이즈 15ml+4ml 50만원대,
 랑콤 인슬루프 프레시스 셀 어드밴스드 아이크림 20ml 20만원, **클레드보 보베** 크림용 콘택트 드레이프 15ml 35만원,
 샤넬 수플라피지 리크림 어스 30ml 21만원, **리프리카** 맥스 아이크림 20ml 41만원.



Luxury Cream

이보다 더 럭셔리할 수 있을까. 여차리너 누구나 탐낼, 최고가 안티에이징 크림.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SK-II LXP 알티미트 퍼펙팅 크림 50g 39만원대, **샤넬**도 퓨처 솔루션 LX 토탈 리차-크리에이티브 크림 50ml 40만원, **에스티 로더** 리-뉴트리브 알티미트 리프트 에이지-코렉팅 크림 50ml 39만원대, **아모레퍼시픽** 타임 리스투스스킨 리뉴얼 크림 50g 42만원, **랑콤** 인슬루프 맥스 트레 50ml 52만원.

Reset your time

바빠도 너무 바빠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여성의 몸과 마음은 항상 지쳐 있다. 피부도 마찬가지.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슈퍼 우먼의 피부 시간을 리셋해줄 샤넬의 피부 시간 케어 3단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피부 시간을 리셋하다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당신.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집에 돌아오면 창닫는 아이와 처리해야 할 집안일들, 그리고 틈틈이 잡힌 약속과 주말 모임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눈코 뜰새 없이 바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몸과 마음이 늘 지쳐 있는 이런 슈퍼 우먼이라면 피부 상태 역시 좋을 리 없다. 조금만 잠을 설치도 금세 피부가 푸석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피부는 우리의 건강과 생체 리듬을 대변하는 정직하고 예민한 기관 중 하나다. 그만큼 피부는 환경과의 첫 번째 접점이자 생체 리듬을 통일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 것. 바쁜 생활 속에서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가꾸고 싶다면 먼저 피부의 리듬과 시간 사이클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규칙적인 패턴이 있듯 피부에도 규칙적인 리듬과 시간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사이클을 무시한 채 피부를 혹사시키면 점차 생체 리듬이 깨지고 피부 역시 시간의 개념을 상실하게 되는 것. 샤넬 연구소는 피부과 전문의들과 임상 연구를 통해 이를 피부 시차라고 규명, 피부가 생체 리듬의 부조화로 생긴 시차를 겪으면 탄력, 피부 톤, 피뿔기, 이모투를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이는 피부 시차를 해결하고 생체 리듬을 바로잡으면 우리가 꿈꾸는 생기 있고 촉촉한 피부를 가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착안해 샤넬은 피부의 시간을 재설정하고 피부가 시간의 개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필수 요소를 적용한 3단계 피부 시간 케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는 피부 시간과 리듬을 정상화해 피부 전반을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신개념 스킨케어 제품. 아침과 저녁, 주말을 위한 각기 다른 효능과 포괄적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피부 시간 케어 프로그램
 샤넬의 피부 시간 케어 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피부 재활성화를 위한 아침용 세럼인 '르 주르'는 아침 스킨케어 가장 첫 단계에 사용하는 모닝 퍼스트 세럼으로, 피부가 하루 종일 받게 될 자극에 대항할 수 있도록 피부 세포 속에 보관된 에너지를 유지시키는 것이 특징. 재스민 플라워와 어린 재스민 새싹의 조합으로 탄생한 활성 성분이 피부에 활력을 더하고, 실질적인 시차 조절을 위해 피부 톤과 결을 개선한다. 토너 사용 후에 바로 펄스 사용하던 에센스를 이어 바르면 된다. 저녁 스킨케어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피니시인 라 누이트는 최근 더 백백해진 하루 일과와 이행정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현대 여성에게 꼭 필요한 제품. 피부가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회복 작용을 하는 것에 착안해, 진정 효과 탁월한 유향 추출물과 피부의 탄력을 회복시키는 히알루론산을 함유했다. 일주일에 이틀, 주말에만 사용하는 스페셜 리뉴얼 트리트먼트인 '르 위켄드'는 아침저녁으로 토너 후 사용하면 되는데, 마치 청정 스키텀링을 받은 것처럼 피부가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핵심 성분인 글리콜산과 이르기닌 복합체가 피부 산도를 pH 5.5의 상태로 맞춰 피부 턴오버 작용을 정상화한다. 또 로즈 워터가 뛰어난 진정 작용과 릴랙스 효과를 발휘해 피부를 편안하게 케어한다. 이 세 가지 제품은 제품별 효능에 따라 골라 사용할 수 있어 스킨케어 단계에 추가하면 기존 제품의 효능을 높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 르 주르 50ml 12만원, 라 누이 50ml 12만원, 르 위켄드 50ml 15만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권유진

precious Pleasure

고품격 뷰티 케어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빠르고 집중적인 효능,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독보적인 성분과 고급스러운 텍스처로 눈부신 피부를 완성해줄 프레스티지 코즈메틱을 눈여겨볼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Intensive Care

중요한 날을 앞두고 빠르고 집중적인 효과를 선사할 인텐시브 케어 프로그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르 블랑 인텐시브 나이트 화이트닝 트리트먼트 47개입 39만원대, **에스티 로더** 리-뉴트리브 인텐시브 리프트 시리즈 앰플 147개입 42만원, **랑콤** 오가드 인피니트 데일리 앰플 30ml 64만원대, **리프리카** 미린 리콜 리피어링 큐어 EX 6개입 16만원, **리프리카** 미린 하이드로 앰플 EX 12개입 1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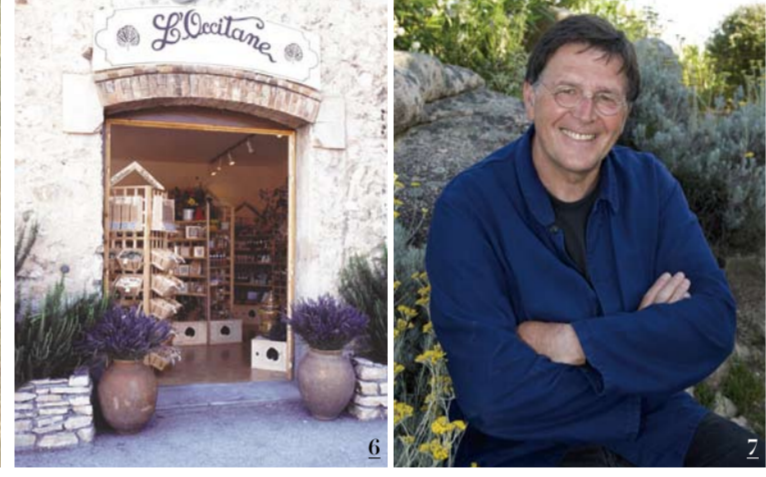


Ultimate Whitening

새하얀 피부의 드레스처럼 맑고 투명한 피부로 가꿔줄 프레스티지 화이트닝 세럼.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더 히스토리 오브** 후 명외향 내외경치 앰플 세트 25ml+7g 14만원, **디올** 프레스티지 화이트 콜렉션 브라이트닝 에센스 30ml 42만원, **입생로랑** 포에버 리프트 크리에이티브 세럼 30ml 15만원대, **랑콤** 오가드 인피니트 화이트 세럼 30ml 59만원대, 에디터 권유진

더 히스토리 오브 080-727-5252
랑콤 02-3438-9627
디올 02-3438-9537
입생로랑 080-347-0089
에스티 로더 02-3440-2772
랑콤 080-022-3332
클레드보 보베 02-3438-6032
샤넬 080-332-2700
리프리카 080-511-6626
리프리카 - 아모레퍼시픽 080-023-5454
SK-II 080-023-3333
샤넬도 080-564-7700

문리자, 사진제공 샤넬 뷰티 & 퍼피



the essence of Provence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수많은 유기농, 친환경 브랜드가 있지만, 프랑스의 아름다운 고장 프로방스에서 온 '룩시땅'은 순수한 성분과 브랜드 역사, 친환경 화장품의 선구자라는 측면에서 독보적이다. 대지의 힘과 순수한 원료에 대한 고집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지켜온 룩시땅 이야기.

룩시땅의 고향 프로방스

눈이 시리도록 푸른 지중해와 따사로운 햇살. 프랑스 남부 지역을 일컫는 '프로방스(Provence)'는 유럽의 부호들이 사랑하는 휴양지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으로 잘 알려져 있다. 끝없이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가 파도 치는 이미지, 바로 그 자체다. 인삼파의 대가 고희도 프로방스의 작은 도시인 아를을 사랑해 그 유명한 '밤의 테라스', '올리브 나무', '해바라기와 같은 작품들이 모두 이곳에서 탄생했다. 평생을 프로방스에서 보낸 화가 세잔 역시 프로방스의 풍경을 주제로 한 수많은 작품을 그려왔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프로방스를 사랑한 사람은 룩시땅의 창립자인 올리비에 보송이다. 어린 시절을 프로방스에서 보낸 보송은 자신이 자란 프로방스의 전통과 자연을 담아내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낡은 증류기를 구입, 1976년 5월 첫 번째 로즈메리 에센셜 오일을 완성했다. 당시 23세의 대학생이었던 그는 자신이 증류한 오일을 차에 싣고 프로방스 장터를 돌며 판매하다 프로방스 지역에 작은 비누 공장을 열었다. 이것이 바로 룩시땅의 시작이고, 룩시땅을 프로방스 브랜드라 명명하는 이유다. 룩시땅이라는 브랜드 이름조차 프로방스 지역 출신의 여성을 의미할 정도다. 룩시땅의 부티크를 방문하면 프로방스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 매장 바닥은 실제 프로방스 코트 다쥐르(Cote d'Azur) 지역의 붉은 모래를 본떠 붉은 타일로 제작했으며 선반을 비롯한 제품 용기 모두 프로방스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 이 아름다운 프로방스의 자연을 그대로 담은 브랜드, 룩시땅의 창립자 올리비에 보송은 지난 38년간 프로방스에서 재배하는 성분과 원료를 제품으로 완성하기 위해 수많은 애정을 쏟았다. 굳이 따지자면 프로방스의 세계적인 홍보대사 격인 셀이 다. 매장을 방문하면 마치 작은 부티크에 들어선 듯한 친근함을 느

끼지만, 룩시땅은 이미 전 세계 60여 개국에 7백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한 브랜드다. 까다로운 소비자가 많은 일본에서는 경쟁한 화장품 브랜드를 제치고 매출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대지의 기운을 그대로 담은 순수한 원료

룩시땅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원료다. 수많은 브랜드가 과학적 테크놀로지를 강조할 때 룩시땅은 오직 원료만을 이야기했다. 프로방스의 땅의 힘을 믿은 것이다. 모든 제품의 원산지를 규명할 뿐 아니라, 제품 개발도 전통적인 제조 기법을 따르고 오로지 천연 원료만 사용한다. 수년 전 한국을 찾은 창립자 올리비에 보송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천연 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천연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가치는 화장품 그 이상이다.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는 본래 자연적으로 자라나던 지역을 벗어나 인위적으로 재배하기 어렵기에 그 지역에서 그대로 재배하게 된다. 그 때문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멸종 위기에 놓인 식물을 보존하는 역할까지 하기에 이러한 화장품들을 만드는 것이다. 다양한 자연 원료 화장품들을 만든다는 것은 보다 많은 식물 종을 보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룩시땅의 모든 제품은 프로방스와 지중해 지역에서 나는 최상의 원료만 사용하고 계절마다 수확하는 성분으로 완성한다. 시원하고 향긋한 베베나는 지중해 연안의 청정 지역인 코르시카 섬에서 5월에, 프로방스의 블루 골드라 불리는 라벤더는 7월부터 8월 사이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수확해 바로 공장으로 옮긴다. 최상품의 라벤더 오일을 얻기 위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증기를 이용해 증류하는데, 프랑스 정부의 엄격한 A.O.C 인증을 통과한 라벤더 에센셜 오일만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다. A.O.C 인증은 매년 갱신해야 하는 것이기에 뛰어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룩시땅을 대표하는, 노화 방지에 뛰어난 이모르텔 라인에 그 풍부한 향기와 부드러운 텍스처로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자리 잡았는데, 지중해 연안 코르시카 섬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노란빛의 이모르텔 꽃을 원료로 한다. 페이스 케어 제품에는 인공색소를 사용하지 않고 자외선 제품에도 화학 성분이 아닌 100% 미네랄 선 필터만 사용할 정도로 원료에 대한 룩시땅의 고집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룩시땅을 대표하는 최고의 제품

룩시땅 마니아들은 룩시땅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품력이'라고 말한다. 최근 속속 출시한 자연주의 브랜드보다 신뢰가 깊은 데다, 인공 향 없이 천연 원료의 부드러운 향, 거부감 없는 텍스처에 합리적인 가격이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천연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끈적임이 없고 흡수력이 뛰어나다.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3초당 1개씩 팔리며 전 세계 룩시땅 매장 내 판매 1위를 고수하는 시어버터 핸드크림. '승무원 핸드크림'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르자마자 촉촉하게 스며드는 즉각적인 효과가 뛰어나고 다른 핸드크림과는 달리 향기가 자극적이지 않다. 마치 버터를 바르는 것과 같이 텍스처가 부드러운 이모르텔 크림 마스크는 유기농으로 경작한 이모르텔 꽃의 순수한 에센셜 오일, 20% 이상의 시어버터가 담겨 있다. 얼굴 전체에 바르고 5~10분 정도 후에 씻어내면 되는데, 상쾌한 꽃 향기가 은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잠들기 전 얼굴에 얇게 펴 바르고 수면 팩으로 사용해도 좋다. 아로마 리페어 헤어 마스크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블 TV의 뷰티 프로그램에서 헤어 마스크 부문 1위를 차지한 제품. 모발을 재생시키는 다섯 가지 에센셜 오일과 헤바라기, 보리 오일이 함유되어 영양을 공급하고 손상을 방지하는 헤어 안티에이징 제품이다. 화학 성분을 함유한 헤어 마스크와는 달리 머릿결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해준다. 특급 호텔의 아메니티로도 자주 만날 수 있는 상쾌한 베베나 샤워 젤은 순한 식물성 거품 인자가 피부의 건조함을 완화하고 진정 효과를 발휘한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좋아할 만한 베베나와 레몬 향이 가득해 선물용으로 훌륭하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만날 수 있는 수분 크림인 엔젤리카 클로잉 하이드레이션 크림도 기대할 만하다. 단 며칠 만에 몇 미터가 자

L'OCCITANE Best 5

룩시땅의 브랜드 가치가 아무리 높고, 추구하는 바가 아름답다고 해도 제품력이 뛰어나지 않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지 못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 룩시땅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제품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엔젤리카 클로잉 하이드레이션 크림 50ml 4만8천원.

시어버터 핸드크림 30mlX3세트 3만9천원, 75ml 2만6천원, 150ml 3만15천원.

베베나 샤워 젤 250ml 2만8천원, 500ml 4만5천원.

아로마 리페어 헤어 마스크 250ml 4만원.

이모르텔 크림 마스크 125ml 10만원.

라는 놀라운 성장력을 지닌, 프로방스산 유기농 엔젤리카를 원료로 하기에 믿을 만하다.

착한 브랜드의 제품 퀄리티가 높은 이유

좋은 원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브랜드의 정성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는 룩시땅은 보다 적극적이고 순수한 사회적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료를 공급하는 방법을 통해 상생을 도모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최근 아몬드 캐리비안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어 프로방스 내에서 아몬드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캘리포니아 아몬드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룩시땅은 아몬드 나무를 경작하는 젊은 농민들에게 경제적인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 프로방스 지역의 상징인 올리브와 라벤더같이 아몬드도 소중한 자원이고, 전통을 이어나가기 한다는 것이 룩시땅의 정성이기 때문이다. 시어버터 역시 이러한 페어 트레이딩이 결실을 맺은 경우로, 창립자 보송이 가장 뿌듯하게 여기는 라인이다. 시어버터 라인이 시어 나무의 원산지인 서부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 지역과 페어 트레이딩을 통해 이루어낸 산물이기 때문이다. 시어버터는 '여성의 황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가난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성들이 유일하게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다. 마을 단위로 소소하게 이루어지던 시어버터 제작은 룩시땅과 부르키나파소 공화국 간의 파트너십으로 이어졌으며 UN 산하 여성 기구와 손잡고 이 지역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경제적인 독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룩시땅은 화장품업계 최초로 시각 장애인들을 배려해 제품에 점자를 삽입했다. 또 1997년부터 전 세계 룩시땅 매장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은 사과 주스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 만든 것이다. 룩시땅이 지속적으로 펼치는 이러한 '착한 활동'들은 제품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뚜렷한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제품에도 더욱 순수한 성분을 사용하고, 인위적인 방법을 더하지 않고 뛰어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꾸준한 원료를 관리한다. 이렇게 신뢰 깊은 브랜드로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창립자의 고집이 필요했을 것이다. 확실한 원료를 사용한 착한 브랜드의 합리적인 제품이라는 이 완벽한 삼박자는 앞으로도 룩시땅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이다. 문의 02-3014-2965 에디터 배민진

1 코르시카 섬에서 유기농으로 경작하는 이모르텔 꽃. 피부 탄력을 개선한다. 2 아몬드 나무. 룩시땅의 아몬드 라인은 100% 오트 프로방스 지역에서 수확하는 아몬드만을 사용한다. 3 룩시땅의 가장 중요한 원료이자 프로방스의 상징인 라벤더 잎. 올리비에 보송은 전통을 지키고 좋은 원료를 고집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수증기로 얻어진 전통적인 증류 방법으로 라벤더 오일을 추출한다. 4 놀라운 성장력으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식물인 엔젤리카. 5 프로방스에 위치한 룩시땅 공장. 6 1980년 프로방스의 작은 마을에 오묘한 룩시땅의 첫 번째 매장 모습. 7 룩시땅 창립자 올리비에 보송. 8, 9 룩시땅은 화장품의 주요 원료인 시어버터를 부르키나파소 공화국의 여성에게 공급받아 아프리카 여성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조 알론 피오니 앤 벨라쉬 스위이드 코롱** 신부에게 어울리는 작안의 관능적인 향기를 담은 신제품 향수. 붉은 사과의 향기로운 과즙과 순수한 재스민, 장미, 카네이션의 향기에 가족의 목자향 향기를 더해 더욱 특별하다. 30ml 8만원대. 문의 02-3440-2562 **반클리프 아펠 레브** 아름다운 주얼리 브랜드인 반클리프 아펠에서 선보이는 시적인 향수. 카다란 꽃다발을 들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을 표현한 향기다. 백합과 같은 화이트 플로럴 계열의 향기가 선달우드, 마스크, 화이트 앵버의 향과 조화를 이룬다. 30ml 6만원. 문의 080-800-8809 **에르메스 엘리 갈레쉬** 우아한 여성을 위한 세련한 아이리스 향기를 담은 럭셔리 향수. 에르메스를 대표하는 켈리 백과 마쉬에 달린 등인 칼레시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다. 50ml 13만3천원. 문의 080-990-8889 **겐조 콜리르 겐조 로즈 핑크** 플라워 겸의 우아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여성스러운 향수. 활력 넘치는 사보론이 아우라진 장미의 향기를 담아 신혼여행지에서 가볍게 뿌리기 좋다. 50ml 8만9천원. 문의 080-344-9500 **입생 로랑 베이비** 볼 수없는 여성들의 첫 번째 향수였던, 전설적인 향기를 담은 향수. 사랑스러움이 느껴지는 보석같은 핑크빛 패키지에 발발함과 경쾌함을 느낄 수 있는 자몽, 블랙 카랜트, 장미, 마스크 향이 어우러져 있다. 80ml 13만원대. 문의 080-347-0089 **발랑 오 드 이보아르** 이국적인 오스만투스 압슬루와 매그놀리아 오일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마스키 플로럴 프루티 향수. 패시 핑크 베이스에 발랑 패션 하우스의 패턴을 섬세하게 장식했다. 50ml 8만원. 문의 080-800-8809



Secret scents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을 우아하게 마무리하는 것은 특별한 향기다. 로맨틱하고 관능적인, 커플을 위한 향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디올 옴므 코롱** 단순함이 고급스러움의 본질이라는 유수 다들의 찬사를 그대로 담은 향수. 그라피프 프루츠 플라워와 화이트 마스크 향이 신선하다. 125ml 14만1천원. 문의 02-3438-9631 **부세론 자이푸르 옴므 리미티드 에디션** 볼드한 부세론의 주얼리에서 영감을 받은 블루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보틀 디자인이 멋스러운 아이키티 스프레이 향수. 워터 벨론과 클로브의 조화가 목조와 같은 청량감을 선사한다. 100ml 10만원. 문의 080-800-8809 **존 바버토스 아티잔 블랙** 나무 소재를 고아 완성한 독특한 우형 패키지는 존 바버토스 향수의 시그니처다. 은은한 우디 향에 남성미를 강조한 마스크 향기를 다한 세련된 향수로 탠저인과 오렌지의 시트러스 향기를 더해 생동감이 느껴진다. 75ml 7만9천원. 문의 080-363-5454 **아르마니 프라베 로즈 다라비**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오트 쿠튀르 찬란함을 담아 만든 프라베 컬렉션 향수. 장미의 관능적인 향을 담은 매혹적인 향기와 바닐라의 부드러운 향이 어우러진다. 100ml 85만원대. 문의 080-022-3332 **에르메스 보이쉬 데르메스 퓨어 퍼플** 여행이라는 테마로 만든 프레스시 우드 마스크 향기가 멋진 향수. 향수병 가운데를 장식한 말린장 모양의 회전축 덕분에 섀비 케이스가 360도로 회전한다. 앵버와 로제의 미묘한 향기가 어우러져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어울린다. 35ml 12만1천원. 문의 080-990-8888 **에디트 베이진**

Powerful red essence

SK-II는 25년간의 연구 끝에 혁신적인 테크놀로지와 최신 성분을 결합한 스템파워 에센스를 완성하기 이르렀다. 모공이 작아 보이는 쫄쫄한 피부, 팽팽하게 잡아당긴 듯 탄력 있는 얼굴 라인을 원하는 여성의 꿈을 실현시켜줄 획기적인 에센스임이 분명하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25년간의 피부 연구의 결실, 레드 에센스

동안 크림, 동안 각도, 동안 피부 등 한국 여성의 동안 열망을 반영한 획기적인 제품을 선보이는 SK-II가 여름철 늘어난 모공과 떨어진 탄력으로 고민인 여성을 위해 새로운 동안 에센스, '스템파워 에센스'를 완성했다. 출시를 앞둔 지난 7월 2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레드 에센스를 처음 공개하는 자리와 함께 SK-II 디스커버리 글로벌 이벤트가 열렸다. 브랜드의 뿌리를 지탱하는 피테라™에 대한 실험과 일본 아키타 현의 여성을 대상으로 10년간 이루어진 피부 추척 연구인 아키타 스타디 등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SK-II의 과거,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 피테라의 역사와 성분을 알아보는 헤리티지 갤러리를 먼저 둘러본 후 스템파워 에센스 론칭 프레젠테이션 룸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지난해 선보인 스템파워 크림의 놀라운 효과를 경험해본 터라 스템파워 라인의 새로운 에센스를 선보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기대감이 충만해 있었다. SK-II 연구원과 세계적으로 저명한 피부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부 자문 위원회가 25년간 진행해온 피부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타임 라인 터널을 지나 스크린 영상이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 룸에 들어섰다. SK-II의 테크니컬 마케팅 매니저, 가쓰미 도야마는 25년간의 심층적인 피부 연구 업적을 기리며 피부 노화에 대한 최근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결과를 공개했다. SK-II 과학자를 비롯해 피부 세포 기능 연구 분야에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젊고, 탄력 있고, 건강한 동안 피부를 완성하는 이상적인 솔루션을 찾기 위한 1만 시간의 연구를 거쳐 '동안 스위치'를 발견한 과정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동안 스위치는 피부의 전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촉진 시그널로, 피부 환경을 최적화해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동시에 피부 속 탄력도를 높여 모공이 작아 보이는 쫄쫄한 피부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한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이동한 갤러리 룸에는 레드 에센스의 주요 성분인 아티초크와 한련초, 시베리아 진생을 오브제로 전시했으며, 직접 텍스처를 느껴보는 시연도 함께 진행되었다. 또 레드 에센스를 미리 써본 각국의 파워 블로거의 소감이 터치스크린으로 소개되어 생생한 후기를 들을 수 있었다.

모공 쫄쫄 피부를 선사하는 SK-II 레드 에센스

SK-II의 헤리티지의 근원인 피테라™에서 비롯된 '스템파워 에센스'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스템파워 테크놀로지가 피부 속을 촘촘하게 채워 늘어난 모공을 작아 보이게 하고 탄력을 끌어올려 최상의 동안 피부를 완성하는 에센스다. 1만 시간의 피부 연구를 통해 발견한 '동안 스위치'를 깨워 동안 피부의 핵심 조건인 작은 모공과 쫄쫄한 피부결, 떨어진 탄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안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피부는 재생 시스템이 느려져 피부 내면의 탄력이 쉽게 떨어진다는 점이 포인트. 브랜드에서 새롭게 정의한 '모공 쫄쫄 파워'를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이네, 이는 SK-II 메직링 기기를 통해 측정 가능한 피부 속의 탄력 정도로, 동안 각도와 모공 측정을 통해 피부의 밀도와 탄력 정도를 계산할 수 있다. 성분에 일각점이 있는 SK-II인 만큼 새로운 성분과 조합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피테라™성분을 바탕으로 지중해와 북아프리카에서 자생하며 동안 스위치의 활성화를 돕는 아티초크 추출액, 한련초 추출액 등 네 가지 성분을 담은 '스템-이카빅스 ES 콤플렉스'의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를 담아 흡수력과 보습력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스템파워 크림의 쫄쫄함과 촉촉한 텍스처에 매료되었던 이들의 기대감을 반영한 듯, 쫄쫄하고 풍부한 텍스처도 일품이다. 스프레이를 한 번 펌프해 떨어낸 크림을 이마, 양볼, 턱을 안에서 바깥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면 피부 표면에 막을 씌운 듯 윤기가 돌며, 산뜻한 마무리를 선사한다. 30ml 14만원대. 문의 080-023-3333 **에디트 이베진**



1. SK-II Stem-Acanax ES Complex presentation stage. 2. SK-II product display on stage. 3. Close-up of a plant. 4. Laboratory hallway with informational panels.

1, 2 업그레이드된 '스템-이카빅스 콤플렉스'를 담은 레드 에센스 프레젠테이션 현장. 3 피부 내면의 밀도를 촘촘하게 채워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련초 추출액을 담았다. 4 25년에 걸친 SK-II의 피부 연구 과정을 선보였다.



D-day beauty

결혼을 두 달 정도 앞두고 있다면 지방 흡입이나 성형 같은 적극적인 시술은 혹시 모를 부작용 때문에 꺼려진다. 비수술적 요법으로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날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락 마사지, 지방 파괴술, V라인 리프팅까지,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이 '직접' 체험한 생생한 리뷰.

셀룰라이트와 비만 세포를 잡는 체외 충격파 시술, 마네킹 필

뷰티 시술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는 청담동 앞대에서는 지금 체외 충격파 시술이 최대 이슈다. 뷰티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케 이블 TV 프로그램 <갯잇뷰티>에서 고주파 시술과 체외 충격파 시술을 다한 '마네킹 필'이라는 독특한 시술을 받고 두 달 만에 77 사이즈 하 체를 44 사이즈로 줄인 체험자가 등장해 모두를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만일 이 드라마틱한 효과가 사실이라면, 두꺼운 팔뚝과 두툼해져 어 깨 라인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예비 신부들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마네킹 필'을 선택했다. 비만 치료에 체외 충격파 시술을 적용 한 '마네킹 필'의 원리는 광장히 체계적이다. 고주파로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것에 더해 체외 충격파로 염증을 잡아 통증과 제거해 부른 비만을 해결하고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셀룰라이트를 1차적으로 완화한다. 체외 충격파는 일반적으로 관절 염증 치료에 활용하는데, 이를 비만 치료에 적용한 것이다. 목 뒤에서 척추로 이어지는 등 라인, 골도 없이 붓는 종아리, 늘어선 뒤편 허리살, 출렁이는 팔뚝 모두 부종이 원인 일 수 있다. 림블라더의 홍보필 김경현 매니저는 "체형 시술에 지방을 파괴하는 시술 외에 부종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는 부종이 아닐로 하벽자의 순마살, 두툼한 어깨 등 부른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방을 제거한다 해도 순환이 되지 않아 부으면 만족 도가 떨어지고 원하는 라인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고주파와 체외 충격파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완벽한 '마네킹 필' 시술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에디터가 받은 시술은 복부와 팔, 어깨 라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예비 신부를 위한 신체 시술. 4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총 4회 진행하며 1회당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무부담 사이즈를 쟀 후, 인바디 체계를 통해 체중과 체지방, 수분량 등을 측정해 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모든 관리는 1:1 프라이빗 룸에서 진행되는 침대에 누우면 체외 충격파 기계를 관리를 시작한다. 고주파 시술을 하기 전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과정으로 먼저 마이크로워밍 행진 체외 충격파 기계를 15분간 시술 부위를 문질러 셀룰라이트와 부종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1차적으로 치료한다. 체외 충격파를 경험해보면 작이 없기에 처음 받아보는 자 극이 이질적으로 느껴졌지만 고통스러운 느낌은 아니었다. 지방세포와 셀룰라이트를 파괴하는 고주파 시술이 1시간 이상 이어지는데, 따뜻한 온도로 피부를 문지르는 정도이기 때문에 마사지만의 것보다 생각하면 된다. 고주파 시술이 끝나면 다시 집중적으로 체외 충격 파 시술을 받는데, 1시간가량 이어지며 근막 염증을 실질적으로 치료해 부종을 제거한다. 부종 치료의 경우 종아리 부위가 한 번의 시술 로 2cm가량 감소하기도 하는데, 세 가지 과정 중 통증이 가장 큰 편이다. 바늘로 콧속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든는데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금방 익숙해진다. 빠른 효과를 얻기 위해 한 달간 식이 조절과 운동을 병행했다. 처음 효과를 느낀 것은 시술 당일. 긴장한 사람은 첫날 느낌이 훨씬 쉽게 빠지는 느낌도 받았다. 팔 역시 사이즈가 감소했으나 탄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고주파 때문인지 늘어지는 부분은 전혀 없었다. 일반적으로 복부 지방 흡입을 했을 때 기대하는 감소 효과가 5cm 정도라고 하니 고통 없이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만족스럽고, 단순히 살을 빼는 시술이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고 건강까지 관리해주는 시술이라는 점이 매력적이다. 특히 셀룰라이트, 지방세포를 완전히 제거해 요 현상이 거의 없는 반 영구적 시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가격을 고려하더라도 추천할 만하다. 어깨, 등, 팔까지 케어하는 탑실루에트마네킹 필 4주 프로그램은 드레스 라인 스킨케어 2회를 포함해 5만1천원. 청담동 림블라더. 문의 02-3448-3003 에디터 배비진

가름한 얼굴을 위한 V-라인 관리

내가 결혼 날짜를 잡은 예비 신부라면 단연 얼굴 라인을 슬림하게 만드는 데 총 력을 기울일 것이다. 두루뭉술한 턱선을 비롯해 흐릿한 얼굴 윤곽, 페이스 라인 을 따라 둔탁하게 자리 잡은 지방층이 늘 마음의 짐처럼 따라다녔던 터라 특별한 날을 앞두고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했다. 자작 근육의 움직임을 퇴화시켜 얼굴을 가름하게 하는 사각턱 보톡스와 리네이저 V리프팅을 함께 하는 시술이 인기라는 소식을 듣고 신사동 가로수길의 WE클리닉을 찾았다.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스러워야 하며,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시술의 조건 을 충족시키기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리네이저 V리프팅은 삼정 혈관 수술이 나 내장 기관을 왜매던 POD라는 광장히 않은 녹는 살을 피부에 넣어 리프팅 효 과를 내는 시술. 살을 넣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탄력이 생길까 하는 의구심이 들 었는데, 이 녹는 살을 여러 개 레이어링하면 살과 살이 딱 달라 붙어서 지방은 줄 이고 진피층에는 콜라겐을 형성해 팽팽하게 담겨주는 역할을 한다. 광대 주위 에 탄력이 떨어지거나 지방층이 확실하게 자리 잡아 가름해 보이는 인상을 원하 는 사람에게 제격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마치 나를 위해 태어난 시술인 것처럼 흥 분되었다. 게다가 1~2년까지 효과가 지속되며, 이후에도 본래 얼굴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상담 후 누가 아래부터 턱까지 마취 연 고를 바르고 1시간 정도 저자 본격적인 시술이 시작되었다. 먼저 턱에 힘이 들 어가는 정도를 파악해 보톡스 주사를 맞은 다음 리네이저 V리프팅 시술을 시작 했다. 처짐 정도에 따라 굵기와 길이가 다른 바늘을 사용하는데, 피부 위로 뾰족 한 바늘을 여러 번 찡찡히 하기 때문에 따끔한 통증과 미세한 영이 따를 수밖에 없다. 광대 아래쪽 볼 부위를 시작으로 귀에서 턱까지 내려오는 페이스 라인을 거쳐 턱 아래 둔탁하게 자리 잡은 볼독살까지 이어가며 빠른 속도로 바늘을 넣고 빼기를 반복했다. 개인마다 근육 발달 정도가 다르고 지방층이 많이 쌓인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유능한 전문의를 찾는 것이 중요해 보였다. 15분간의 짧은 시술이 끝나 후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한 얼음찜질로 총 1시간 30분가량의 시 술을 마무리했다. 시술 후 일주일 동안은 격렬한 운동이나 사우나, 음주는 삼가 고 많이 씹는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다는 주의 사항을 듣고 귀가했다. 2주가 지 난 지금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없지만 턱선이 서서히 드러나는 게 느껴지고, 피부 탄력이 차올라 팔자 주름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게 큰 기쁨. 살이 녹으면 콜라겐 재생을 촉진해 피부가 좋아진다는 말대로 촉촉한 윤기까지 덩으로 얻게 되었다. 리네이저 V리프팅의 시술 효과는 2개월이 지나야 정점을 이루기 때문에 웨딩 촬영이나 결혼식을 앞두고 가름한 얼굴형을 만들고 싶다면 최소 7~8주 전에는 시술받기를 권하며, 사파하고 세련된 페이스 라인을 만들고 싶은 예비 신부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리네이저 V리프팅+보톡스 60만~1백 만원대. 신사동 WE클리닉. 문의 02-518-0045 에디터 이예진

골목 마사지로 부드러운 라인을 만들다

결혼을 앞둔 친구들이 모이면 늘 열을 올리는 대화 주제가 있다. 바로 웨딩 마사 지다. "웨딩 관리는 어디 어디가 잘한다", "팔뚝살 관리는 거기 최고야" 등 각 중 경험담이 쏟아진다. 주사나 레이저 시술에 대한 공포와 부담은 없으면서 보다 쉽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마사지 케어는 결혼식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관리법 중 하나. 특히 경락 마사지는 몸의 순환을 돕고 라인을 잡아주며 디톡스 효과로 피부까지 맑게 해주어 예비 신부 케어로 단연 인기다. 소위 경락 마사지 좀 받아 봤다는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스타그램 청담동 황후연을 찾았다. 시크릿 패치라 는 원적외선이 쬐어져 나오는 스티커를 붙여 관리하는 케어법으로 이미 블로그 나 방송 매체에서 유명세를 탄 곳이기도 더욱 기대가 컸다. 황후연의 특별 관리 중 귀를 가장 솔깃하게 했던 것은 골목 마사지다. 이는 단순히 피부 겉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뼈대를 깊고 있는 골막을 풀어주어 굳은 근육과 흐트러 진 뼈대의 원형을 바로잡아주는 관리. 1회 관리만으로도 얼굴선이 부드럽고 날 령처럼 실제 연예인들이 방송 전에 자주 받는 케어다. 황후연의 웨딩 관리는 이 런 골목 관리를 바탕으로 드레스를 입으면 드러나는 신체와 데칼코마에 집중해 약 3시간에 걸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케어하는 스페셜 프로그램이다. 먼저 마사 지 데드 에 염려 골막 관리를 시작했다. 2명의 에스테티션이 신체와 체형을 나 누며 마사지하는데, 깊하게 주무르는 경락 마사지는 달리 매우 부드럽고 빠르게 살을 꼬집기도 하고, 근육과 골격 주변을 좌우로 흔들흔들 풀어내듯 몸 구석구 석을 만져주었다. 신기하게도 강한 압력이 느껴지지 않았음에도 근육이 시원하 게 풀어지는 느낌에 온몸의 긴장이 탁 풀리는 듯했다. 돌아누워 얼굴에 진정 팩 을 올리고 족욕을 하면서 두개골 교정 마사지를 함께 진행했다. 이곳만의 특별 한 두피 관리 제품을 발라 두피의 열을 식히고,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세라믹 컵 으로 머리카락 안쪽에 흐르는 혈을 자극해 머릿진 얼굴을 바로잡고 두피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관리다. 이어서 데칼코, 팔, 복부 마사지를 시작했다. '시크릿 이빨'이라는 특별한 패치를 문진 할 골목 무위와 귀, 쇄골, 림프선 등에 붙이고 그 부분을 꼭꼭 누르며 지압 관리를 시작했다. 특히 귀에 붙인 이빨 패치는 신체 중요 부위의 혈을 자극해 피부 톤 개선, 두통 완화, 혈액순환 개선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개선 효과를 발휘한다. 안아끼지 손을 넣어 문진 얼굴 근육을 풀어 주는 것이 생소하고 매우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화산석 마사 지. 얼굴, 데칼코에 마사지 크림을 바르고 부드러운 화산석으로 마사지하는데, 속근육과 걸근육이 유착되어 피부가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보다 깊고 힘 있게 자극을 주는 화산석을 활용해 속근육을 확실하게 풀어주는 관리다. 마지막으로 황후연의 특수 모델링 팩을 얼굴과 복부에 발라 피부에 쌓인 독소와 부 종을 케어한 후 관리를 마무리했다. 사실 1회만으로는 얼마나 달라질까 반신반의 했던 관리가 끝나고 가운을 보니 그 생각은 말끔히 사라졌다. 무엇보다 인색이 환해진 것은 물론 페이스 라인이 몰라보게 부드러워진 것. 탄력 없던 보디 피부 역시 매끈하게 정돈된 것을 보니 꾸준히 관리를 받는다면 기대했던 효과를 확 실히 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웨딩 프로그램 1회 50만~80만원대. 청담 동 2명동 황후연. 문의 02-561-6848 에디터 권유진

Double effect

자외선 차단제 하나도 여름철 스킨케어를 완벽히 했다고 자신하는가. '조금 붉어진 것뿐이냐' 하고 방심해서는 결코 안 된다. 겉으로 드러난 병상의 일각만 보았다간 몇 달 뒤 피부에 남은 건 얼룩덜룩한 피부 톤과 잡티뿐일 테니까. 바캉스가 남긴 피부 노화의 흔적을 해결해줄 시세이도 골드 세럼이 8월, 그 효과만큼 2배 커진 대용량 사이즈로 선보인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화이트닝과 안티에이징,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자외선에 자극받아 따금거리고 건조했던 피부는 보통 일주 일이 지나면 회복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 피부 는 탄력을 잃고 기미와 잡티가 하나둘 눈에 띄게 되는데, 이 때를 제대로 공략해야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건강하게 회복 시킬 수 있다. 먼저 피부가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면 아침저 념으로 화이트닝 케어에 올린 것. 화이트닝과 더불어 피부 건조를 해결하고 자외선의 공습으로 더욱 깊어진 주름을 함 께 관리해줄 집중 트리트먼트 제품이더 더욱 좋다. 화이 트닝과 안티에이징, 두 마리 토끼를 잡아줄 프리미엄 토털 화이트닝 세럼인 '시세이도 리바이탈 바이탈 퍼펙션 사이언 스 세럼 AAA 화이트닝(이하 '골드 세럼')은 피부에 나타나는 가장 큰 세 가지 주요 고민인 잡티, 칙칙함, 어두움을 해결 해 애프터 바캉스 케어에 꼭 필요한 아이템. 피부 톤과 잡티 에 집중 작용하고 피부 탄력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집중 관리 가 필요한 예비 신부에게도 추천하는 제품이다. 골드 세럼은 노화와 함께 약해진 피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탄력과 환한 얼굴빛을 되찾아주는데, 알란토인과 비타민 E 유도체로 구 성된 바이탈 에너지징 시스템이 멜라닌이 있는 표피세포 의 턴오버 기능을 향상시켜 끈질긴 잡티 생성의 사이클을 차 단한다. 또 세일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눈 아래와 입 주변 의 피부가 처지는 현상을 개선해 어떤 각도에서나 탄력 있는 피부로 바꿔준다. 4MSK와 함께 올린b 입 추출물, 시호 추 출물, 코엔자임 Q10을 함유한 시세이도의 독자적인 안티에 이징 성분인 시세이도 VP8은 피부것, 피부 톤의 전반적인 개선을 도와주는 핵심 성분. 더불어 감미어 추출물이 멜라닌 의 생성을 예방하고 비타민 C 계열 성분이 이미 생성된 멜라 닌을 밝혀주어 피부 톤을 깨끗하게 가꿔주는 것이 특징이다.

더블 효과와 함께 더블 용량으로 만나다

피부 탄력과 미백을 한 번에 관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안티에이징만 하자니 화이트닝이 아쉽고, 각각 따 로 케어하자니 서로 맞지 않는 성분이 충돌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도 될 터.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시세이도 골드 세럼은 단 하나의 제품만으로 잃었던 탄력과 환한 얼굴색을 되찾게 하는 프리미엄 화이트닝 제품으로, 간편함과 강력한 듀얼 효과로 시세이도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로 단숨에 등극했 다. 이런 큰 인기에 힘입어 시세이도는 8월 한 달간, 기존의 40ml 용량을 2배 늘린 80ml 리미티드 대용량 제품을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인다. 이는 그동안 골드 세럼을 사 랑해온 마니아에게는 착한 가격에 2배의 용량을, 애프터 선 케어로 본격적인 피부 관리가 필요한 이어겐 대용량의 골드 세럼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실제 12주 동 안의 임상 실험 결과 실제 피부 톤이 투명해진 것은 물론 볼 에 있는 잡티가 열어졌으며 피부 처짐도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니 그 효과는 믿어도 좋다. 세안 후 손바닥에 세럼을 세 번 정도 펴평해 턱, 볼, 눈 주위를 원을 그리듯 마 사지해 흡수시키면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0ml 21 만원, 80ml 29만원. 문의 080-564-7700 에디터 권유진





1 서양에 모임의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가 멋진 조화를 이루는 목걸이와 귀고리, 세장의 미학이 돋보이는 이 목걸이에는 총 2백26.67캐럿의 에메랄드, 36.36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사용됐다. 2 은은하고 아름다운 빛깔의 에메랄드와 눈부신 다이아몬드가 훌륭히 박혀 유리한 곡선미를 빛내며,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분위기를 지니는 브로치. 3 감각적인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인상적인 목걸이와 귀고리 세트. 그라프 아이콘 컬렉션(Graff Icon Collection). 4 나비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됐다는 그라프 버터플라이 모티프 컬렉션(Graff Butterfly Motif Collection). 루비와 다이아몬드의 세련된 앙상블이 돋보이는 목걸이와 귀고리 세트다.

the king of Diamonds

다이아몬드의 진정한 '1인자'를 자처하는 영국의 하이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Graff)를 한국에서도 접할 수 있게 됐다. '다이아몬드의 왕'이라는 별칭을 지닌 로렌스 그라프가 탄생시킨 세계적인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다. 세계 최고의 보석 세공 명장들이 '수제작'으로 빛어내는 최상의 주얼리 컬렉션을 만나보자.

다이아몬드의 명성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자부하는 영국의 하이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Graff)가 서울에 입성했다. 전면적인 보수 작업을 마치고 화려한 모습을 드러낸 신라호텔에 들어선 이 브랜드는 '다이아몬드의 왕(The King of Diamonds)'으로 일컬어지는 로렌스 그라프가 1960년 설립했다. 최고급 보석, 시계와 같은 하이 주얼리 컬렉션뿐만 아니라 대규모 팡상까지 거느린,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생산업자 중 하나로 꼽히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이 브랜드의 창시자 그라프는 '다이아몬드는 내 인생이다. 나는 다이아몬드 속에 존재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로 다이아몬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남다른 인물이다. 창업자부터 이차림 다이아몬드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온 만큼 그라프의 주얼리 라인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디자인부터 세팅 작업까지 전 과정에 걸쳐 런던에 위치한 워크숍에서 일일이 '수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업계 최고의 솜씨를 지닌 보석 세공 명장들의 손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라프는 지난 2008년 다이아몬드의 굳건한 아성을 발판으로 럭셔리 시계에도 야심 찬 도전장을 내밀었다. '다이아몬드'에 영감을 받고, 다이아몬드에서 태어나, 다이아몬드로서 영원한(Inspired by a Diamond: Born of a Diamond: Eternal as a Diamond)이라는 화려한 비전을 내세워 하이 컴플리케이션 라인, 스포츠 라인, 드레슬라인, 주얼리 라인, 맞춤형 제작 라인 등 5개의 컬렉션을 대대적으로 선보인 것이다. 그라프는 하이 주얼리 분야에서 보여온 높은 수준의 수공예적인 완성도와 장인 정신을 럭셔리 시계 부문에서도 똑같이 구현하고자 한다. 스위스 명품 시계 가운데서 최고 등급의 품질을 구현하고 특허를 받은 정도로 커팅과 세팅 기술이 남다른 그라프 고유의 출중한 보석 미학을 접목한 '작품'을 실현하려는 열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크라운을 눈부신 다이아몬드로 씌운다든지, 케이스 뒷면을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단면 처리한다든지 하는 그라프만의 특별한 방식이 있다. 삼각형 커팅 방식을 적용한 에메랄드가 12시 정각에 맞춰져 있는 우아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그라프 시계의 '공통분모'로 꼽히는 요체다. 전 세계에 36개 매장을 거느린 그라프는 아시아 지역에서 먼저 진출한 중국과 일본에서 거둔 성공에 고무돼 이번에 한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 브랜드의 품격에 맞게 매장의 위치 선정과 인테리어 디자인에도 유난한 공을 들였



다는 후문이다. 최근 6개월간의 대대적인 레노베이션 작업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연 신라호텔을 선택한 그라프 살롱의 디자인은 세계적인 인테리어 전문가인 피터 마리노와 회사 자체적으로 보유한 '인하우스 디자인 팀'이 공동으로 맡았는데, 매장 자체가 '보석 같다'고 자부할 정도로 빼어난 스타일을 뽐낸다. 로렌스 그라프 회장은 모든 게 빠르고, 24시간 움직이는 역동성이 뽐낼필되는 아시아 시장에서는 최고의 명품에 대한 수요도 시들 줄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의 하이 주얼리 시장도 상당한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했다. 2013년 8월 1일 공식 개점한 그라프의 한국 1호 매장 '그라프 다이아몬드 신라(Graff Diamonds Shilla)'는 서울 중구 장충동2가 202 번지에 위치한 신라호텔 내에 자리 잡고 있다. 문의 02-2256-6810 **에디터 고성연**

상하이의 초여름을 장식한 영화의 수호자

기술의 혁신성, 장인의 내공 어린 예술성, 뛰어난 마케팅 감각으로 기하학적 내두를 만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하이엔드 시계. 21세기에 '시계의 르네상스'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 주자 중 하나인 파인 워치메이킹 브랜드 예저 르쿨트르는 그 남다른 존재감을 올려주 상하이국제영화제(SIFF)에서 드러냈다.

올해로 탄생한 지 1백80년이 된 뜻깊은 해를 기념하는 예저 르쿨트르(Jaeger-LeCoultre)는 파인 워치메이킹(Fine Watchmaking)이라는 단어의 품격에 어울리는 시계 브랜드다. 탄탄한 전통의 반석 위에 4백 개에 육박하는 특허를 내는 등 혁신의 자취를 꾸준히 아로새겨온 이 브랜드는 '우아한 실력파답게 예술 영화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다. 9년 전부터 베니스국제영화제를 후원하기 시작했고 2011년부터는 중동의 아부다비영화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상하이국제영화제(SIFF)의 공식 스폰서 역할을 맡으며 영화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다. "영화는 우리 브랜드가 지닌 혁신과 창조적 이미지와 잘 맞는 파트너십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1백80년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예저 르쿨트르의 존재 자체가 영화인인지도 모르죠." SIFF를 찾은 예저 르쿨트르의 북아시아 마케팅 디렉터인 줄리앙 레너드는 상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영화 사랑에 화답하듯 지난 6월 15일 SIFF의 개막에 맞춰 화려하게 펼쳐진 예저 르쿨트르의 브랜드 행사에 중국 배우들을 비롯해 영국의 톰 후퍼 감독, 미국의 올리버 스톤 감독, 대만 영화배우 비비안 수, 고이상 등 해외 영화 인사들까지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우선 이날 오후 화제를 불러일으킨 '신작'은 상하이전시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 베일을 벗은 여성용 하이 주얼리 워치 컬렉션인 '리베르스 코드네 듀에토(Reverso Cordonette Duetto)'. 중국을 대표하는 여배우이자 예저 르쿨트르의 브랜드 홍보대사이기도 한 자오 웨이(Zhao Wei)가 직접 소개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1백80도 회전 가능한 케이스의 앞과 뒷면에 2개의 다이얼을 장착한 이 시계가 기존 여성 리베르스 컬렉션의 하이 주얼리 모델들과 차별되는 요소는 가죽이나 실크 스트랩이 아니라 왕관의 일종인 다이아렘을 연상시키는 눈부신 브레이슬릿을 채택했다는 점. 7.52캐럿에 이른다는 1천2백50여 개의 총총히 박힌 다이아몬드가 연출하는 부드러운 곡선미와 화려함은 우아하고 섬세한 아르데코 스타일을 느끼게 한다. 이어 이날 밤 갈라 디너에서는 또 다른 '하이라이트'를 선보였다. 예저 르쿨트르 탄생 1백80주년을 맞아 창립자인 앙투안 르쿨트르에게 헌정하는 '주빌리 컬렉션 3종 중 하나인 마스터 울트라 씬 주빌리(Master Ultra Thin Jubilee)'로 8백88점의 한정판 중에서도 특별히 1백80번째 모델이 낙점됐다. 케이스의 총 두께가 4.05mm에 불과해 현존하는 시계 중 가장 얇은 매뉴얼 와인딩(수동 태엽 방식)을 자랑한다는 이 초박형 제품의 1백80번째 모델은 경매에 부쳐졌으며, 경매 수익금은 예년처럼 중국 고전 영화 복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요즘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시장에서는 기계식 시계에 대한 여성의 관심이 부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많은 여성들이 핸드백이나 패션에서 시계나 주얼



116회 상하이국제영화제(SIFF) 기간에 최초로 공개된 예저 르쿨트르의 여성용 하이 주얼리 워치 컬렉션 리베르스 코드네 듀에토. 2 SIFF를 후원하는 예저 르쿨트르의 올해 마지막 '리베르스 컬렉션'. 3 SIFF의 메인 디렉터 푸젠사 예저 르쿨트르 갈라 디너에 참석할 모든 생라보르들에게 증서를 수여했다. 4 중국고전영화복원 기금을 위해 경매에 출품된 초박형 기계식 시계 마스터 울트라 씬 주빌리.

리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 파인 워치메이킹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와 비슷해요. 처음엔 디자인이나 브랜드를 보다가 점차 시계를 작동시키는 메커니즘, 그리고 시계 내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것이죠." 레너드의 설명이다. 사실 파인 워치메이킹 브랜드들이 내세우는 시계의 내부를 들여다볼 기회를 갖게 된다면 이러한 말에 절로 수긍할 수밖에 없다. 그 작디작은 공간에 극도의 정교함을 뽐내며 자리 잡고 있는 섬세한 요소들로 점철된 시계 속 풍경은 한순간인 감탄사가 절로 나올 만큼 기막히게 아름다운 별세계이기 때문이다. 16세기에는 복합적인 함의를 지닌 개념인 '시간'에 대한 숭배심으로 정화하지도 않은 물시계를 보고도 '신의 손'으로 여겼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분명 신이 아닐진대 신의 솜씨를 연상하게 하는 고차원의 시계를 대하면서 인간의 능력에 탄복하게 된다. **에디터 고성연**(상하이 현지 취재)

Progressive passion



수많은 변화를 겪고 더욱 모던한 모습으로 재탄생한 생 로랑이 지난 7월 14일 홍콩 알렉산드라 하우스에 콘셉트 스토어를 오픈하며 완벽한 변화로 접어들었음을 알렸다. 절제되고 정교한 이미지로 가득찬 생 로랑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했다.

생 로랑의 새로운 홍콩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에디 슬리먼'에 관한 것이었다. 스펙이 화려한 이 철저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YSL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했던 파리 브랜드 입생로랑에 2012년 3월 입성하며부터,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가장 큰 변화는 무

엇보다 브랜드명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입생로랑이 정립한 기본으로 회귀하기 위해 초기 레디-투-웨어 브랜드 명인 '생 로랑(Saint Laurent)'으로 돌아가며 1966년 입생 로랑이 디자인한 로고에 사용한 헬베티카(Helvetica) 폰트를 로고에 다시 사용했다. 컬렉션은 물론 모든 패키지를 바꾸고 새로운 인테리어를 적용하기까지 브랜드 전체를 아우르는



혁신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매장 리뉴얼도 포함되는데 지난 7월 14일 홍콩의 핵심적인 명품 로드인 알렉산드라 하우스(Alexandra House)에 새로운 생 로랑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서게 됐다. 지난 5월 파리의 몽테뉴 거리, 6월 뉴욕의 그린 스트리트에 이어 세 번째 콘셉트 스토어다. 홍콩 중심가인 센트럴 20 제이티 로드에서 자리한 스토어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에디 슬리먼이 이끄는 브랜드 전면 개편에 따른 비주얼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명품 주얼리 브랜드부터 최고의 패션 하우스가 모여 있는 장소에 위치한 새로운 스토어는 마치 갤러리처럼 모든 것이 군더더기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새롭게 선보이는 스토어의 콘셉트는 프랑스 장식 예술에 대한 모던한 재해석이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창백하고 모던한 소재들로 공간을 채웠는데, (사진 이미지는 아직 의상을 채우기 전의 모습이다) 우아한 블랙과 화이트 데리쉬를 사용해 강렬한 대비를 보여주고 콘크리트 패널, 거울 선

반, 천장에 매달린 옷걸이, 켈링 가죽 벤치까지 명료한 이미지로 매장을 구성했다. 매장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수직과 수평선의 정교한 물에 맞추어 시각적 리듬을 선사하고 건축 자체에 대한 표현을 절제함으로써 차갑지만 세련된 느낌을 준다. 이렇듯 모던한 공간 안에 정제된 컬렉션만을 엄선해 진열한 생 로랑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에디 슬리먼의 의상은 마치 작품처럼 보인다. 액세서리 컬렉션은 아르데코 모티프의 유리 진열장 안에 세심하게 정리되어 있다. 패션 아이템 모두를 진정된 작품으로 다루는 것이다. 필요한 것이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원하는 모든 것을 매장 안에 비밀스럽게 보관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 컬렉션을 큰 차이 없이 미니멀하게 표현한 의상에 담긴 에티튜드를 표현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구성이다. 브랜드의 모던한 비전을 패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생 로랑의 치밀한 노력은 앞으로로도 계속될 것이다. **에디터 배미진**(홍콩 현지 취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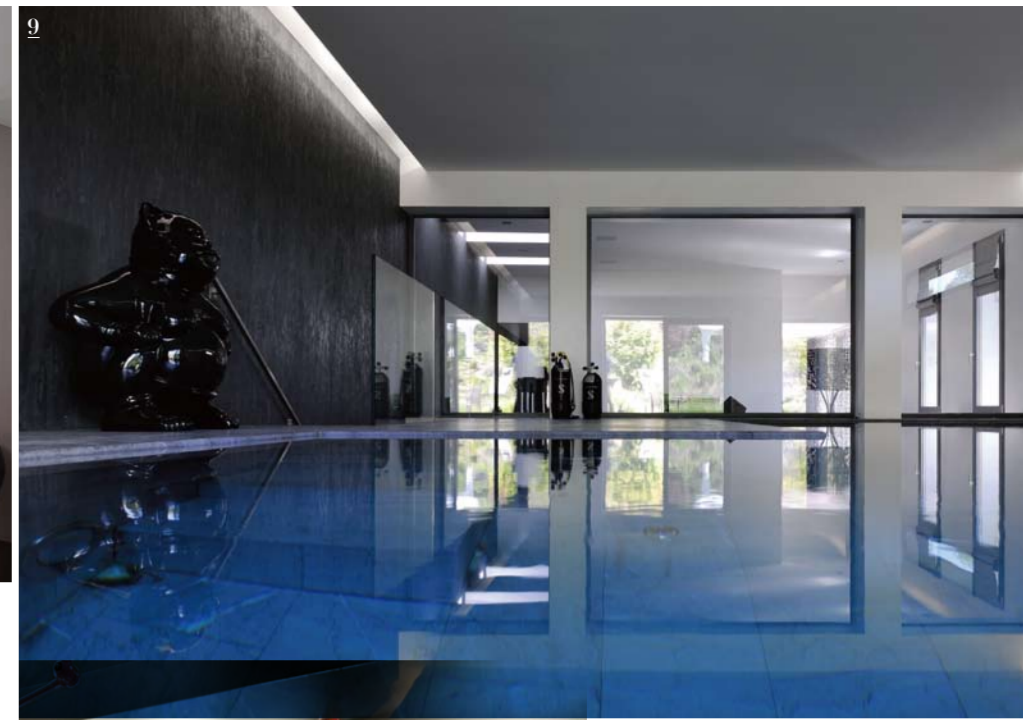
1,2 홍콩 플래그십 스토어 인테리어, 블랙과 화이트 디자인을 사용했다. 3,4 2013 F/W 생 로랑 여성 컬렉션. 5 브랜드 창립 초기 사용했던 '생 로랑' 로고와 매장 전경.



Vintage chic



제너비와 로잔 사이 레만 호수 인근에 자리 잡은, 포도밭을 끼고 있는 낡은 집이 멋지게 부활했다. 대리석과 같은 아름다운 돌, 조명, 현대 예술 작품, 와인 저장고와 실내 풀장까지.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멋이 느껴지는 재생 프로그램이다.



이 부활 프로젝트의 주인공은 스위스 서부의 보(Vaud) 주에 감싸여 바닷가에 방치돼 있던 건물이다. 'STORAGE'라는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디자이너 카티아 오테에(Katia Oetier)는 이 허름한 건물을 잿더미에서 고집내내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 그녀에게 이러한 종류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단지 돈을 받고 하는 일의 차원을 넘어서는, 마치 '신성한 불을 다루는 것과도 같다. 어릴 때 부모가 고구려 채소밭을 돌보던 때와 닮아 있던 경험을 한 카티아 오테에는 자신의 슬러브 활동 때문인지 과거와의 연결 고리를 자닌, 역사가 서린 장소들에 상당한 애착을 느끼는 편이다. 그리고 불가능은 없다는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있다.

"독학을 했기 때문인지 저어겐 장애물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선입견 없이,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그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바로 이처럼 섬세함과 담대함이 조화를 이루는 면모로 집주인들이 그녀를 인테리어나 디자이너로 선택한 이유일 것이다.

카티아 오테에는 2년 여에 걸친 기간 동안 폐허가 된 이곳을 들락날락한 끝에, 이 700㎡ 규모의 낡은 집을 어떻게 살려낼지에 대한 길을 잡았다. 과거의 멋을 최고조로 배가시키면서도 동시에 현대적인 분위기를 가미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작업이었다. 이 집은 원래 와인 메이커의 소유로 1848년에 지어졌다. 고색창연한 오크 통과 압착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잔재가 이 집의 분위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창출하는 데 영감을 주었다. 그렇다. 바로 와인 셀라였다. 이 집에는 로맨틱한 포도밭으로 연결되는 작은 정원이 있다. 그리고 제너비와 로잔의 중간 정도에 자리해 상당히 이상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과거의 지취가 품고 있는 가치를 보존하고 극대화하는 재건 작업에는 유연한 대응과 불굴의 완고함을 적절히 섞은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그 때문에 거의 2년에 가까운 집 수리 기간이 필요했다. 디테일에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했음이 느껴질 만큼 세세한 부분의 완성도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아, 디테일은 거의 죽을 일이지요. 어떤 것도 눈에 맡기지 않고 면밀하게 처리했어요." 카티아 오테의 설명이다. 그녀는 우선 19세기의 전형적인 건축양식으로 지은 이 집의 돌담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 고풍스러운 외관을 보다 현대적으로 살리기 위해 8명의 석공을 투입했다. 각각의 돌이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세심한 공을 들였다. 보다 순수하고 깨끗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불필요한 선이나 문손잡이 같은 요소들을 눈에 띄지 않게 처리했다. 모든 첨단 기기는 아래층에 두었다. 장식적인 요소는 숨겨져 있다고 보면 된다. "집 안에서는 움직이고 숨을 쉴 수 있어야 해요. 제가 그림이나 오브제 등 예술 작품을 곳곳에 놓아두기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의 도전 과제는 감정이 있는, 영혼이 느껴지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죠."

이 집의 거실은 바로 그녀의 이러한 디자인 비전을 잘 반영한 공간이다. 실내 풀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거실에서는 크리에이티브의 출중한 독창성이 묻어난다. 프랑스 동부 사부아(Savoie) 지역의 푸른색 회색암을 사용했고, 벽에 걸린 디자이너 안도 히로의 기념비적인 작품 '스모 캣(Sumo Cat)'은 집무른 물줄기를 바라보며 명상하고 있는 듯하다. 집주인 소유였던 스쿠버 탱크도 이 공간과 꽤나 잘 어울린다. 디테일 하나하나가 돋보인다. 실내 풀은 거실 위로 살짝 돌출해 있는데, 방 안에서 바라볼 때는 눈높이가 딱 맞는다. 또 풀 자체는 정원과 포도밭을 볼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결국 거실과 포도밭 사이에는 아무런 시각적인 장애물이 없는 셈이다. 그리고 집 안 어느 곳을 보나 남성적인 힘이 느껴지는 사각 형태가 압도적으로 느껴진다. 또 공통적으로 흐르는 주제를 유기한 장치도 설계해놓았다. 예컨대 현관 입구와 부엌, 침실에는 동물 가죽들이 놓여 있다.

마지막으로 이 집의 화룡점정인 와인 지하 저장고. 사실 이 집의 설계 과정에서 어떤 엔지니어가 노후한 외나리틀을 이에 허물어버리라고 제안했지만, 카티아 오테에는 오히려 '회생의 방안'을 택했다. 14℃를 유지하는 이 와인 셀러는 상당히 독창적으로 꾸며져 있다. 존재감 날카로운 커다란 돌이 든든한 테이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스위스 서남부의 발레(Valais) 지역의 채석장에서 가져온 것이다. 무게가 1톤이나 된다. 그리고 이보다 그리 많이 가볍지 않아 보이는 돌 싱크대도 인테리어나의 미학에 묘미를 더한다. 말 그대로 묵직한 '돌 덩어리'를 배치하다 보니 무려 5명의 장정이 투입되고 설치하는 데 8시간이 소요됐다고 하는데, 그러한 땀 배인 노력은 그만한 가치를 뿜어낸 것 같다. 진정으로 '살아 있는' 공간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자연미를 살린 구조와 재료 덕분에 통풍이 잘되는 이곳에서는 냄새가 강한 풍류나 시기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여기에 셀러에서 좋은 와인을 꺼내 곁들인다면 그림자도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에디터 고성연

1 와인 메이커의 집이었던 고풍스러운 재료가 심플한 벽이 돋보이는 현대적인 재료가 대비됐다. 장식을 최대한으로 배제한, 모든 디테일을 내면에 품고 있는 이 레노베이션 작업은 와인으로도 호기심을 자극한다.

2 위에서 사선으로 새어 나오는 빛조차 멋진 벽 장식처럼 보이는 거실, 모노톤의 벽과 천장, 모던하고 직선적인 연구실, 유리 와 애들의 적절한 배치 등이 대담이 현대적인 느낌을 더한다. 가구는 최대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선택했고, 화려한 미술 작품으로 무채색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3 돌을 총총히 박은 벽과 나무 바닥, 유리, 철제 개단 등이 조화를 이룬 세련된 실내 공간.

4 무채색의 실내에 따뜻한 느낌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5 모던한 메탈 소재와 화이트가 조화를 이룬 주방. 깔끔한 라인이 훌륭한 액센트가 된다.

6 침실 역시 무채색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완성했다.

7 무려 1톤이 되는 커다란 돌 테이블이 눈길을 끄는 지하 와인 셀러. 노후한 외나리틀을 아주 독창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8 나무와 돌로 자연미를 살린 콘셉트가 인상적이다.

9 은은한 자연광과 먼 분할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한 실내.

10 실내 수영장에서 바라본 이트적이고 미래적인 전망.

11 에스 톨 중 하나인 무채색을 띠며 레노와 오텔의 매력이 생동감 있게 연출했다.

11 곳곳에 주인의 취향이 돋보이는 미술 작품을 두어 마치 갤러리 같은 느낌을 풍긴다.

Luxe kitchen

아름다운 패턴의 플레이트와 컬러풀한 냄비, 모던한 스테인리스 스틸 팬 등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으로 예비 신부를 사로잡을 럭셔리 키친웨어와 테이블 세팅 노하우.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패턴과 컬러가 과감한 플레이트가 대세
가구나 전자 제품, 인테리어 소품 등 컬러를 강조한 트렌드가 주방까지 확장되며 키친웨어의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지난 시즌부터 눈에 띄기 시작한 일록달룩한 플레이트는 부드러운 파스텔컬러부터 패션 소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파격적인 핑크와 블루까지 컬러 스펙트럼을 확장하며 더욱 화사하고 대담해지는 추세. 같은 브랜드 제품을 세트로 구입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테마를 정해 분위기가 비슷한 그릇을 매치하는 것이 요즘 플레이트 레이아웃의 특징이다. 이를 위한 블루 컬러를 테마로 잡았다면 에르메스의 블루 다이아(Blue d'Ailleurs)와 블루 원형 패턴의 마리메코 이브지즈(VIZI), 로열 코펜하겐의 블루 플루티드 폴라이스를 함께 믹스해서 사용하는 식이다. 모노톤의 가전제품이 많은 주방에는 컬러풀한 그릇이 데카레이션 역할을 특별히 해내는데, 마구잡이로 컬러를 뒤섞으면 신만할 수 있으니 강약을 조절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화이트, 그레이 등 여러 개의 베이직한 플레이트에는 레드, 그린 등 비바드한 컬러를 한두개만 포인트를 주고 튀는 컬러의 그릇에는 흰색 생선이나 닭고기 등 심플한 색상의 음식을 곁들이는 것이 안전하고 세련된 방법이다.

조리 도구의 명품, 스테인리스 스틸 팬과 무쇠 냄비
음식의 꽃, 화끈한 불 요리에 빠져서는 안 될 고가의 그릴과 팬은 조리 도구의 명품으로 불리며 혼수의 중요한 품목으로 떠올랐다. 독일인의 자부심이 깃든 프리미엄 주방 브랜드 휘슬러의 압력밥솥을 비롯해 냄비와 쿡팬, 르 크루제의 컬러풀한 무쇠 주물 냄비와 그릴은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충족시키며 예비 신부들의 로망으로 손꼽힌다. "무쇠 냄비는 빈티지하면서도 투박한 매력에 있어 북유럽풍의 담백하고 심플한 그릇과 잘 어울리지요. 라넨이나 우드 등의 테이블 매트도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강조하는 것이 멋스러워요. 반면에 미니멀하고 차가운 질감의 스테인리스 냄비는 그레이 톤의 식기나 블랙&화이트 스트라이프의 테이블웨어를 과감하게 매치하면 세련된 테이블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리빙 스타일리스트 민들레 실장의 조언처럼 냄비나 팬, 그릴의 소재에 따라 식기를 세팅하면 남들과는 차별화된 감각적인 테이블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에디터 이연진**

(위 왼쪽부터 순서대로) 심베인 진과 물진은 4개 세트 구성으로 각 14만원, 11만2천원 **LSA by 슈즈 리빙**, 스틸 냄비 받침 16만원대 **알레시 by 더클레어스**, 옐로 컬러 24cm 주물 냄비 4만2천원 **르 크루제**, 뉴 크루시 스틸팩스 프리미엄 쿡 팬 20만원대, 스파게티 집게 4만원대, 식재료용 상성하게 보관하는 프리미엄 프래쉬 캐시스터 메탈 보관 용기 12만원대 모두 **휘슬러**, 화이트 플레이트 10만9천원, 티 포트 12만9천원, 블랙 패턴 마그 각 2만7천원, 3만2천원 모두 **마리메코**, 골드 테이블의 사각 장시 중 제일 큰 사이즈는 30만원대, 나머지는 모두 20만원대 **에르메스**, 고급모자 형태의 장갑 16만원대 **알레시 by 더클레어스**, 레드 컬러 25cm 무쇠 그릴 20만9천원 **르 크루제**, 연두색 후추갈이 3만원대 **조셉조셉 by SSG**, 포크 3만2천원, 나이프 4만2천원 **사보레 by 슈즈 리빙**.

휘슬러 080-400-4100 **마리메코** 02-515-4757 **에르메스** 02-544-7722 **SSG** 1588-1234 **슈즈 리빙** 070-7005-6504 **르 크루제** 080-344-4841 **더클레어스** 02-3444-9595

도움말 스타일리스트 민승이, 민영미(7dooms) 참고 도서 <오르가 좋아하는 부엌살림> 김혜림 지음 (다락방출판사)



타사키 채티 플랜트 컬렉션 타사키에서 '채티 플랜트 (Chatty Plant)' 컬렉션을 선보인다. 컬렉션 이름에 걸맞게 금방이라도 재잘거릴 듯한 식물을 표현하기 위한 최상급 다이아몬드로 18K 옐로 골드 스타드를 7가지처럼 총출격해 세팅했다. 직선적이 아닌 곡선 형태로 원석을 세팅해 착용감을 높이고 시각적인 아름다움까지 더했다. 문의 02-3461-5558

해일턴 카키 네이비 서브 오토 해일턴이 2013년 바젤 월드에서 선보인 '카키 네이비 서브 오토'를 선보인다. 뉴욕 양키스 야구단의 공식 시계로 선정되기도 한 이 워치는 최신 기술과 혁신적인 소재를 접목해 다이아 워치로 새롭게 거듭났다. 코너 케이스에 고정된 원형 다이얼, 오픈형 모사리로 눈길을 끄는 디자인에 300m 방수 기능까지 갖추었다. 문의 02-3149-9593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스타 오펜비스 오메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컨스텔레이션 스타 '오펜비스' 리인은 국제적인 비영리재단인 오펜비스의 시각 장애우들을 위한 캠페인을 후원한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태양계 그늘진 듯한 블루 다이얼을 매치하고 베젤에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18K 화이트 골드로 제작한 핸즈에는 슈퍼 루미노바 코팅을 입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한 푸른빛을 발산한다. 문의 02-3149-9573

스와로브스키 스와로브스키 by 슈룩 캡슐 컬렉션 스와로브스키에서 프랑스 디자이너 슈룩과의 콜라베이션을 통한 '스와로브스키 by 슈룩' 라인을 선보인다. 인도의 마하라자 왕국에서 영감을 받아 비바드한 컬러의 스와로브스키 스톤으로 화려하게 완성했으며, 경쾌한 룩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3395-9096

카르띠에 파리 누벨버그 컬렉션 론칭 이벤트 카르띠에는 '파리 누벨버그' 컬렉션 론칭을 맞아 생대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파리의 7가지 무드를 콘셉트로 한 전시장은 거꾸로 연출한 파리 건축물과 화려한 조명, 감각적인 영상으로 해운이부터 해 질 녘까지의 다양한 무드를 선보였다. 파리 누벨버그 컬렉션은 7가지 스타일의 주얼리를 통해 파리다운의 자유분방한 매력을 드러낸다. 문의 1566-7277

타사키
타사키
타사키



SHOWROOM



BEAUTY
구로 탄생한 혁신의 결과인 스태뎬피워 에센스를 선보였으며, 김하예와 안수정을 비롯해 케이트 보스워스, 텡웨이 등 각국의 글로벌 모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의 080-023-3333

사설 쥬 드 레가르 컬렉션 사설에서 새로운 아이메이저 컬렉션, 쥬 드 레가르 컬렉션을 선보인다. 블랙·퍼플·블루 컬러로 구성된 볼륨 마스카라의 눈썹이 브러시가 속눈썹을 뿌리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코팅해주어 풍성하고 매혹적인 아이메이저컬을 완성한다. 문의 080-332-2700

룩사방 프로방스 샴어 마켓 룩사방은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구성된 '프로방스 샴어 마켓'을 오픈한다. 시야버터 핸드크림, 이모셔널 크림 마스크 등 10개의 베스트셀러 제품은 7월 말부터 한 달간 룩사방의 모든 매장에서 특별 프로모션 세트로 판매할 예정이다. 문의 02-3014-2950

시세이도 미키아쥬 트루 리퀴드 모이스춰 UV 시세이도의 메이크업 라인인 미키아쥬에서 수분 탱크 파운데이션, '트루 리퀴드 모이스춰 UV'를 출시한다. 뷰티 에센스 모이스춰라이징 마스크 포플레이션 성분 이 피부 속 건조함을 잡아주고, 슈퍼 코팅 파우더 입자가 잘타는 주근깨 등 피부 결함을 자연스럽게 감춰준다. 문의 080-564-7700

버버리 하트 리틀 크러쉬 백 버버리 프레스의 2013 F/W 컬렉션에서 처음 선보인 크러쉬 백은 1960년대를 풍미한 버버리의 아이코닉한 상징인 크리스틴 칼라에게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 7백을 수놓은 하트 프린팅에서 로맨틱한 무드를 느낄 수 있으며, 크로스 백이나 클러백 등으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전통적인 빈티지 라지치 백에서 영감을 얻은 자물쇠 장식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드러냈다. 문의 02-3485-6583

폴 스미스 헬시 부츠 폴 스미스에서 매니한 디자인의 헬시 부츠, '오티 네로(Otter Nero)'를 선보인다. 오티 네로는 폴 스미스 여성의 메인 컬렉션 중 남성 슈즈를 재해석한 'Men Only' 라벨의 슈즈로, 고급스러운 소재와 수작업으로 견고하게 만들었다. 발목의 백만 부분 안쪽에는 내온 컬러를 배색해 감각적으로 완성했다. 문의 02-6957-5815

프라다 (태도가 형식이 될 때) 전시회 개최 프라다 재단은 베니스에 위치한 폰다치오네 프라다에서 (태도가 형식이 될 때: 베른 1969/베니스 2013)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했다. 1969년 베른 콘스트할레에서 하랄드 제만이 기획했던 당시의 전시 작품과 작품간의 배치 등을 그대로 유재했다. 프라다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 작품의 복잡성과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일련의 질문을 던진다. www.fondazioneprada.org



FASHION
버버리
폴 스미스
프라다
펜디



라비두스
라비두스 오픈 강북 최대 규모의 소셜 베이진 '라비두스'가 9월 초 오픈한다. 약 3200㎡(9만8000평)에 달하는 넓은 데크에 지상 2개 층, 지하 1개 층, 옥상 루프 거든과 약 990㎡(3백 평)의 정원을 갖추고 있다. 하우스 워드뿐만 아니라 브라질 샴 위, 리하실 디너와 워딩 셰리모니, 애프터 파티 등을 진행하며, 제품 론칭 쇼, 음악회, 패션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파티를 열 수 있는 음향과 조명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문의 02-2265-7000

펜디 뷰티크 오픈과 물의 영광 전시회 펜디는 지난 7월 3일, 파리 에비뉴 몽테뉴의 새로운 뷰티크 오픈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와 칼 라가벨트가 로마 분수를 촬영한 <물의 영광> 사진전을 개최했다. 1977년 펜디가 제작한 단편영화를 상영하는 쇼케이스를 연 후 특별한 민천이 이어졌다. 문의 02-2056-9023



G R A F F

THE MOST FABULOUS JEWELS IN THE WORLD

Now Open at The Shilla Hotel

+82 2 2256 6810

www.graffdiamonds.com